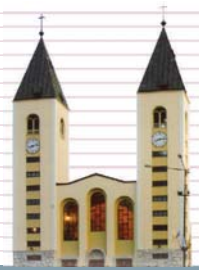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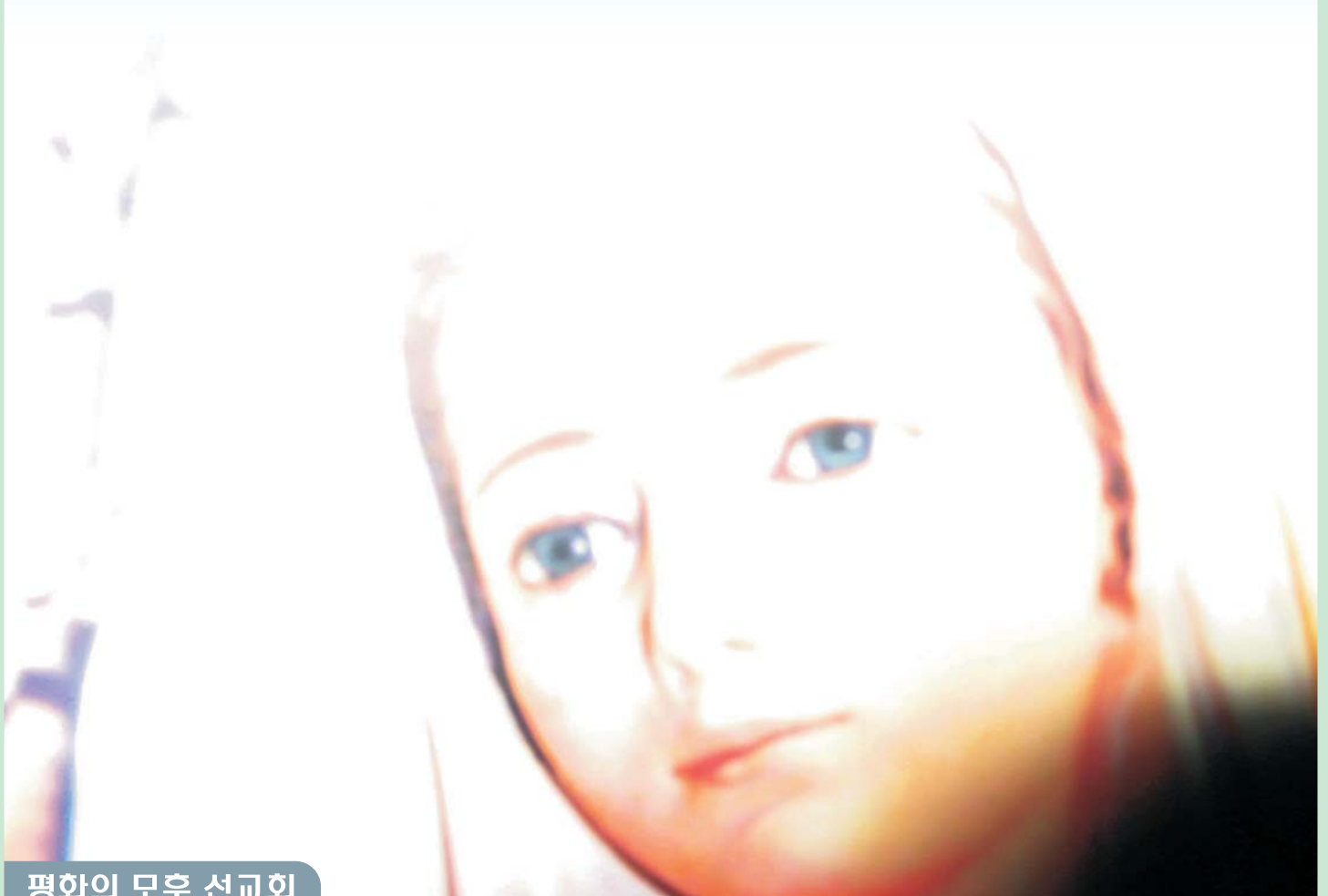


메주고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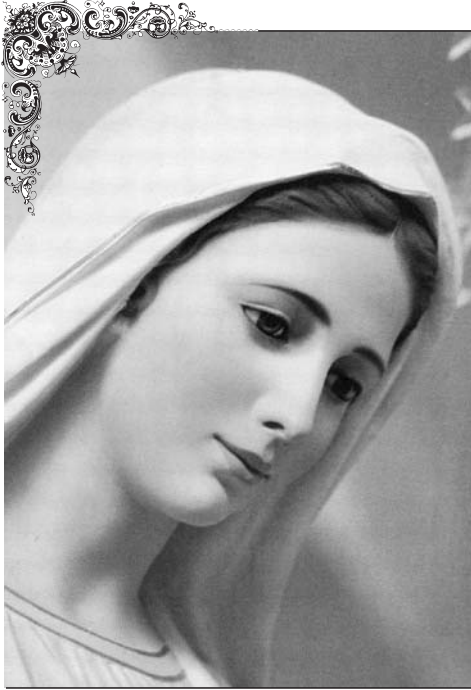


Medjugorje

January, 2008 제42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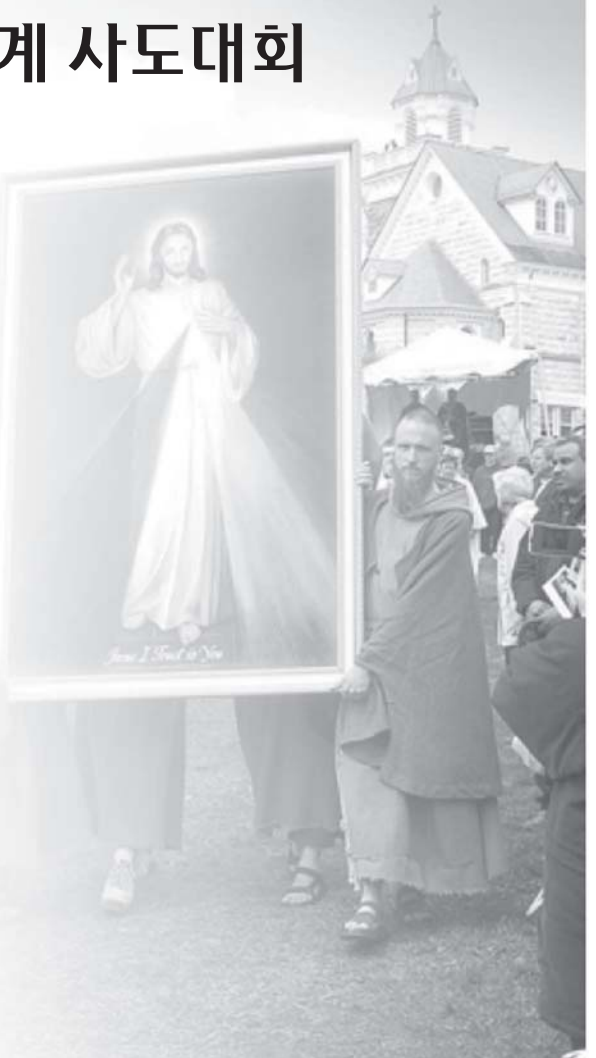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는, 평화의 왕께서 당신의 축복으로 너희를 축복해주시도록,
그분을 너희에게 모셔올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분을 흠송하고 너희가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창조주께 시간을 내드려라.
너희는 이 지상의 나그네이고, 내 아들을 통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과는 달리, 지상의 것들은 너희에게
작은 기쁨 밖에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마라.
너희 마음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너희를 이끌어주기 위하여,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7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주신 성모님 메시지

하느님 자비의 세계 사도대회

하느님의 자비를 재발견해 제삼천년기 새 복음화 동력으로 삼으려는 제1차 하느님 자비의 세계 사도대회(WACOM)가 4월 2일부터 6일까지 로마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3주기 기념미사를 시작으로 열린다. 선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2001년 '하느님 자비주일'(부활 제2주일)을 제정할 때 개최 희망을 피력했던 이 세계대회의 취지는 하느님의 풍요로운 자비를 인식하고, 신앙의 증거를 통해 이를 세상에 전파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깨닫는 데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현대세계의 분쟁과 폭력을 종식하고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신앙인들이 먼저 하느님 자비를 실천하고 전파해야 한다"고 회칙과 강론을 통해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선임 교황님은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신비를 가장 중요시했다"며 세계대회 사무국 관계자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자비사도총회(회장 크리스토프 손본 추기경)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현 교황이 주례하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선종 3주년 기념미사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5일간의 하느님 자비를 내면화하는 5단계 기도, 추기경들 담화와 강연, 세미나, 신앙체험 발표, 촛불행렬 등 다양한 행사가 로마 일대에서 열린다. 하느님 자비에 대해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2000년 성인품에 오른 폴란드 출신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1905~1938)의 삶과 영성, 자비의 하느님 메시지 등을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평화신문 2008. 01.06 발행 -에서 발췌]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하신 지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선교회의 신부님들과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하여...
 - 어머니 마을과 봉사자들을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성모님, 백요셉 마리아 신부님을 보살펴 주세요
 - 남편 바오로의 영육간의 치유를 간절히 청합니다.
 - 연로하신 사랑하는 어머니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성모님, 동생과 언니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을 돌보아 주세요.
 - 어머니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가계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주소서.
 - 성모님, 열심히 살고 있는 안젤라를 늘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주소서.
 - 예수님,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OOO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 예수님, 저의 자식들을 담배와 마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 예수 성심 마리아 성심이시여, 저희 가정에 자비를 베푸심을 감사하나이다.
 - 불목한 가정과 가족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일치를 이루며 하나되게 하여 주소서.
 -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이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나라에서 안식하게 해주소서.
 - 마음의 문을 닫고 살고 있는 OOO형제와 그 자녀들을 지켜 주시고 보살펴 주소서.
 - 42차 지도 신부님들과 순례자들, 비오, 바오로, 미카엘 형제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 사랑하는 저희 가족을 지켜 주시는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모든지향기도들을 봉헌합니다.
 - OOO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 친정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자살한 OOO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아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 부모님을 치유해주시어 서로 용서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주소서.
 - 저희 가족을 당신의 사랑과 지혜로 채워주시어 예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게 해 주세요.
 - 신경남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하느님의 아들로 기쁘게 수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청합니다.
 - 남편이 요셉 성인처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과 경제적 도움을 주시고 성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 세상에 빛과 은총을 전하는 선교회의 사명과 봉사자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후원합니다.
 - 어머니의 영혼과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연옥 영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동생과 남편의 마음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 성모님, 머리 수술을 한 알렉시아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봉헌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 아버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푸셔서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어머니, 아들 Dominie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 저의 가족들에게 자비와 은총 베풀어 주시어 회개하고 굳센 믿음을 갖도록 보살펴주소서.
 - 사춘기를 겪고 있는 김OO이 세속 오류에 물들지 않도록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주님이 주신 아들을 봉헌하며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사제되기를 청합니다.
 - 성모님의 지향과 위암으로 고통중에 있는 OOO과 아내와 가정을 도와주소서.
 - 딸의 도박 중독증의 치유와 아들과 모든 젊은이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들 부부 가정의 평화와 영육간에 건강을 빌며... 내려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이나시오가 이라크에서 무사히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게 해 주심과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통사고로 죽은 Tom과 Daniel의 영혼을 위로해주시고 가족들을 모든 우환과 불행에서 보호해주소서.
 - 성모님, 김영상 비오의 영혼을 예수님의 성심에 봉헌해주시어 영원토록 평안하게 해주소서.
-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도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11월 메주고리에 순례때와 요조신부님께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내가 이처럼 오래 머무르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다.” - 십 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

신경남 스테파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카푸친 작은 형제회)

메주고리에 발현목격증인 여섯 명 가운데 세 사람인 마리아 파블로비치, 비즈카 이반코비치 그리고 이반 드라기체비치는 현재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접하고 있다. 다른 세 사람은 연도를 달리하여 성모님의 매일 발현이 끝났고, 성모님께서 특별히 지정해주신 날에만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다. 성모님의 매일 발현이 가장 먼저 끝난 미리야나 드라기체비치 솔도는 1892년 12월 25일까지, 이반코비치 엘레즈는 1985년 5월 7일까지, 그리고 야콥 출로는 1998년 9월 12일까지 매일 성모님을 뵈올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머지 세 사람의 목격증인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성모님의 매일 발현, 성모님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지상에서 당신의 발현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마지막 발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 때가 언제가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봐서 우리는 그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추론의 근거는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 발현목격증인들에게 주신 열 가지 비밀과 관련이 있다. 이 열 가지 비밀들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인류와 교회가 겪게 되는 큰 어려움에 관련된 것이라고 추정될 뿐, 그 내용은 전혀 알려진 바 없다. 열 가지 비밀을 세상에 밝힐 사명을 받은 미리야나는 각 비밀들이 실현되기 열흘 전에, 이미 그녀가 선택한 프란치스코회 페탈 류부치 신부에게 하나씩 차례로 보내게 되고, 페탈 류부치 신부는 일주일간 단식기도를 한 후 비밀 실현 삼 일 전에 세상에 발표하게 된다. 여기서 비밀의 내용과 세상에 공표하는 방식에서 눈을 돌려 성모님의 매일 발현과 열 가지 비밀이 주어지는 시기의 관계를 살펴보자.

위에서 발현목격증인 미리야나의 경우 1982년 12월 25일까지만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접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성모님의 매일 발현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날 미리야나는 열 번째 비밀을 받았다. 이반카와 야콥에게도 똑 같

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들 역시 열 번째 비밀을 받던 날 성모님의 매일 발현이 끝났다. 현재 매일 발현하시는 성모님을 뵈고 있는 마리아, 비즈카 그리고 이반의 경우 모두 아홉 번째 비밀까지 받았다고 한다. 또한 성모님께서서는 발현 목격증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열 가지 비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상황들을 미루어볼 때, 현재 매일 성모님 발현을 접하고 있는 목격증인들의 경우도 그리 멀지 않은 때에 각각 열 번째 비밀을 받게 되고, 그러면 메주고리에에서의 성모님의 매일 발현은 끝나게 되는 것이다. 오직 그때는 하느님과 성모님만이 아시겠지만 위의 정황을 미루어볼 때, 우리는 그때가 임박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메주고리에에서의 성모님의 매일 발현이 끝날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추론의 근거는 성모님의 메시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1년 8월 25일 평화의 모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내 계획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너희가 기도하도록 초대한다. 사탄은 강하다. 그는 평화와 기쁨의 계획을 혼란스럽게 하여 너희가 나의 아드님이 결심한 것을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니 너희 모두가 더욱더 곳곳이 기도하고 단식하도록 초대한다. 너희의 도움으로, 내가 파티마의 비밀을 통해 시작한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9일 동안 극기하도록 초대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도록 초대한다. 나는 모든 영혼을 구하여 하느님께 바치고 싶다. 그러므로 내가 시작한 모든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기도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성모님께서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 파티마의 비밀이 메주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식하는 사람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리에 발현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신다. 여기서 잠시 눈을 돌려 교황 레오 13세 시대로 돌아가보자. 1884년 10월 13일 교황 레오 13세는 초자연적인 특별한 체험을 했다. 그 날 바티칸의 개인 경당에서 미사를 봉헌한 교황은 미사 후 십 여분 동안 제단 아래 서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일종의 탈혼 상태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그 직후 집무실로 가서, 교황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 미카엘에게 바치는 기도문을 작성했다. 그리고 세상 어디서든지 미사 후에는 반드시 그 기도를 바치도록 명했다. 교황은 나중에 가서 그의 측근들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토로했다. 교황은 미사를 마치고 제단 아래 서자, 환시를 보게 되었다. 환시에서 사탄은 그 특유의 거친 목소리로 거드름을 피우면서, 자신이 교회를 파괴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시간과 힘이 필요하기에, 한 세기의 시간 즉, 100년의 기간을 하느님께 청했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었다. 교황은 덧붙이기를, 주어진 기간 동안 악마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압도적인 참패의 굴욕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교황 레오 13세의 이 초자연적인 체험이 메주고리에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를 위해 메주고리에 발현목적증인 미리야나의 체험을 살펴보자. 1982년 4월 14일 미리야나는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맞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사탄이 그녀에게 나타났다. 그는 성모님의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미리야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탄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했기 때문에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눈치여서 의식을 잃을 뻔 했다. 사탄은 나에게 계속 협박하듯이 말했다.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를 버려라, 그들은 너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나를 따르다면 나는 너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때 나는 마음 속 깊은 데서부터 외쳐댔다. "안 돼! 안 돼!" 그러자 사탄은 떠나버렸고, 성모님이 발현하시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러나 사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탄은 이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 교회가 유혹에 빠지도록 이끌어 간다. 사탄이 하느님께 그러한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하느님은 1세기 기간을 허락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교회를 결코 멸망시킬 수는 없다' 고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기는 사탄의 권위 아래 놓여 있다. 사탄은 신비적인 비결이 채워진 다음에 자기 권세를 잃게 될 것이다. 사

탄은 지금 그전 보다 좀 더 권세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발악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탄은 신성한 결혼을 파괴하고, 사제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괴롭혀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와 단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바치는 공동기도로써 너희 스스로를 보호하여라. 성수를 다시 많이 사용토록 하고, 거룩하게 축성된 성물들을 몸에 지너라. 각 가정에서도 성물들을 사용하도록 권유하여라."

위에서 본대로 미리야나가 사탄에 대한 체험을 하고난 후,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서 한 세기가 사탄의 권위에 놓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언급하셨는데, 이는 교황 레오 13세가 체험한 초자연적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 모든 것을 미루어서 볼 때, 교황 레오 13세의 환시와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성모님께서는 파티마의 비밀이 메주고리에에서 실현된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연도를 생각해보자.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것은 1917년이다. 사탄이 세상과 교회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신 시간은 한 세기, 즉 백 년이다. 그리고 올 해는 2008년이다. 뭔가 보이지 않는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올 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십 년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또 다른 지렛대를 이용해보자. 그것은 1973년부터 1999년까지 이탈리아 성 바오로회 소속 사제 스테파노 곱비 신부에게 내적 담화 형식으로 주신 성모님 메시지 모음집인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이다. 스테파노 곱비 신부를 통해 '마리아 사제 운동'을 일으키신 성모님께서는 1988년 9월 18일 곱비 신부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셨다. "너희는 내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요청은 이 세기의 남은 기간 전체를 내게 봉헌해달라는 것이다. 그것은 십 년이라는 기간이다. 지극히 중요한 십 년이다. 결정적인 십 년이다. 이 기간을 너희는 나와 함께 지내기 바란다. 너희가 (주님) 재림의 종말적 시기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를 내 티 없는 성심의 승리와 내성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오심으로 이끌어갈 시기이다. 십 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라살레프의 발현(*1846년 9월 19일)에서부터 마지막으로 될 현재의 발현들에 걸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대로 '때'가 차게 될 것이다. 십 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희가 여러 해 전부터 겪고 있는 정화가 그 극에 달하리니, 누구에게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다. 십 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성서'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앞설 대환난기(*마태 24:15-28, 마르 13:14-23, 루가 21:20-

24 참조)가 올 것이다. 십 년이라는 기간 동안, 갈수록 커지는 배교의 확산을 통해 (은밀히) 활동해 온 악의 신비(*2테살 2:6 참조)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십 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내가 (발현한) 아이들에게 일러준, (그러나 아직) 비밀(로 되어 있는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너희에게 예고한 사건들도 다 일어날 것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pp. 793-794)

성모님께서서는 곱비 신부를 통해 "그 때가 언제일지 알려고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수많은 발현과 여러 기회를 통해 그때가 언제일지 짐작하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력을 주셨고, 시대의 징표를 살펴보라고 하셨다. 2008년을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기술하는 것은 이제 인류와 교회는 아주 급박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예언자 세례자 요한은 유다 광야에 나타나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3:2). 평화의 모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성모님은 세례자 요한의 축일인 1981년 6월 24일 처음으로 메주고리에서 발현을 시작하셨다. 즉, 이를 통해 성모님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앞서 세례자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지상에서의 당신의 마지막 발현지로서 메주고리예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자신을 통해, 그리고 세기를 이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울려 퍼졌던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한 말씀은 지난 세기와 금세기에는 수많은 곳에서 발현하시는 성모님을 통해 계속해서, 그리고 메주고리예를 통해 결정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메주고리예 발현목적증인들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묵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 말씀은 실현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세상의 종말은 아니지만 한 시대의 마지막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 그리고 죄로 물든 세상과 배교의 물결에 휩싸인 교회의 정화를 거친 후, 묵시록에서 예고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 성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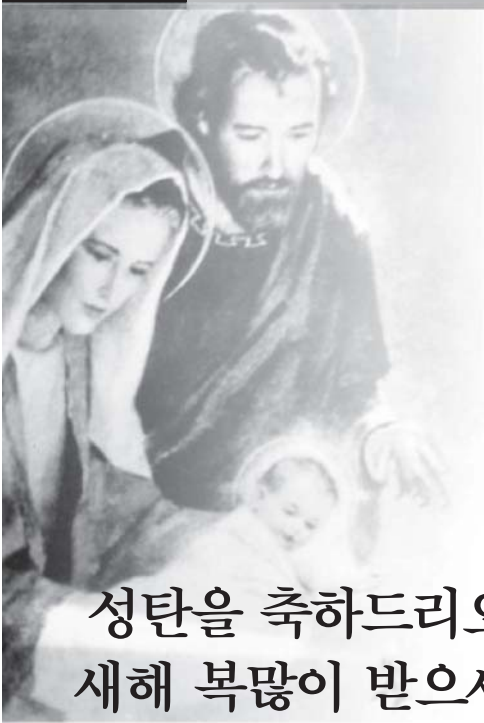
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식하는 사람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다. 기도와 단식, 그리고 성모님께서 주신 모든 메시지를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와 악은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예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 머물러주시는 것은 대단히 큰 은총이고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크신 선물이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과 함께 2008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메주고리예 발현과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회개와 성화, 구원과 평화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성모님께 '예'라고 응답하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또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그분이 원하시는 일만 하도록 다짐하고 노

력하자. 그러기 위해 매일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고 묵상하며 실천에 옮기도록 하자.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너희를 부른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처럼 오래 머무르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너희가 모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모두 실천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6년 10월 30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탄이 강하고, 가능한 한 많은 영혼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지금, 나는 너희가 기도하도록 초대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도와주고,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 새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나를 더욱 깊이 신뢰하여라.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게 될 때, 나의 말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두 기억하는 것이 너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너희 삶을 처음부터 다시 바꾸기 시작하고, 말로써가 아니라 삶을 통해 회개하기로 결심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M (1992년 10월 25일)



성탄을 축하드리오며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대부모 여러분들께,

여러분은 저희 아이들을 대자녀로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은 문을 두드리시는 구세주를 마음안에 모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 준 모든 것은 곧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대부모 프로그램에 여러분 자신을 여심으로써 그분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참여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자신도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변함없이 저희 아이들에게 물질, 윤리적, 그리고 영적인 도움으로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움을 받은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저희 나라의 경제 및 사회 여건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보다 더 살기가 힘들어졌고, 궁핍하여 십년 전

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도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표지이고, 유일한 생존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대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시고 편지와 만남을 통해 대자녀들을 돌보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주신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써 "그렇다,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은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전에서 끔찍한 대참사, 홍수, 지진, 화산 폭발 그리고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해 주어 불운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주님을 만나러 나가게끔 만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며 함께하신다는 표징입니다. 이 거룩한 성탄절에 저희는 구유 앞에, 성모님과 그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성탄절날 새롭게 탄생하시는 왕께서 여러분에게 평화와 축복의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늘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헤르체고비나-보스니아 어린이 국제 대부모 프로그램의 모든 종사자들과 더불어 저는 마음을 다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평화의 모후의 전구를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백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빕니다.

성탄의 축복과 함께 2008년 새해 모든 날들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M**

작은 형제회 요조 조브코 신부 드림



지금은 내 승리의 때이다

227. 81. 7. 1. 산마리노-발드라고네.
'마리아사제운동' 책임자들과의 다락방 모임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의 기도와 한마음이 되어 이 기도를 내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부께 바치며, 너희를 도와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이끌어간다. 너희의 상처에는 향유를 부어주고, 너희의 약함에는 힘을 준다. 그리하여 상처입은 내 마음은 내 조그만 아이들인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고, 내 슬픔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화된다. 그런데, 금년에도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보고자 한 이유를 알겠느냐? 그것은 너희 천상 엄마 -- 태양을 입은 '여인' -- 와 원수인 붉은 '용' 사이의 전투가 이미 결정적 국면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달 동안 일어난 일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정화기에 대해 내가 이미 예고했던 대로이다.

그러니 '지혜의 성령' 안에서 너희 시대의 표징을 해독하는 방법을 익혀두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러 이곳으로 올라오게 했고 힘을 주고 있다. 이제 나의 큰 계획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계획은 오직 너희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그러기에 너희에게서 내 뜻에 대한 완전한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다. 더 이상은 의심하지도 주저하지도 말고, 확신 없는 상태로 있지도 말아라.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간교하고 위험한 내 원수의 무기이니,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을 그가 이 무기들로 마비시켜 왔는지 모른다! 너희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아라. 너희 귀에 들리는 비판의 소리에도, 나의 이 '사업' 을 둘러싸고 종종 일어나는 회의론에도, 도무지 마음쓰지 말아라. 누구나 다 나의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오직 티없는 내 성심 안에만 너희 안전의 원천이 있다. 너희는 이 안에서, 나에게 의해, 너희를 기다리는 대전투에 대비하게 된다. 이 안에서 나에게 의해, 기도의 훈련을 받는다. 기도야말로 너희가 가지고 싸워야 할 무기인 까닭이다. 더 많이 기도하여라. 언제나 기도하여라. 너희의 활동 하나하나마다 참으로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미사'를 그대로 살아내어라. '미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너희를 희생 제

물로 바치는 것이다. '성무일도'를 열심히 바쳐라. 이것은 너희 하루 시간의 리듬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기도이다. '거룩한 묵주기도'를 사랑과 기쁨을 기울여 바쳐라.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너희에게 해 온 나의 말에 대해 묵상하여라. 이 말이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인도한다. 너희는 오늘날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만민에게 선포해야 한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루빨리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당신의 자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려 세상을 쇠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내 사랑하는 맏아들인 교황을 따라 큰 고통을 겪도록 부름받았다. 교황은 지금 자기 자신의 피로 흠뻑 젖은 채 '갈바리아로 향해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너희도 그와 함께 그 길을 가도록 이 천상 엄마가 인도하고 있다. 특히, 이 안에서 너희는 나의 양성을 받아 완전한 사랑에 이르게 된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형제들이 모두 너희와 영적으로 가까이 있으며, 세상 어디에나 나 퍼져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의 마음에도 이 며칠 특별한 은총이 내렸다. 내가 너희 안에서 살면서 너희를 통해 만민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때가 왔다. 내가 너희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너희 눈으로 보고, 너희 입술로 위로하며 복돋아 주고, 너희 발로 걷고, 피로 얼룩진 너희 발자국을 따라가고, 십자가에 못박히는 너희 몸으로 고난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은 마지막 전투의 때이다. 따라서 내 승리의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 번 더 너희를 불렀고, 너희는 내게 응답하여 이 다락방으로 왔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며 성령께 간구하고 있다.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도록,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리라. **M**

(이 메시지는 1973년 부터 1997년 까지 파티마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금껏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주어라!

사브리나꼬비치 (남기옥 마르타 역)

질문 : 신부님, 발현 언덕 위에 올라가보셨습니까?

요조 신부 : 아니요, 이 사건과 거리를 두고 싶었고, 혼자서 생각할 여유를 갖고 싶었습니다. 모든게 믿을 수가 없어서 신중한 것이 제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했습니다. "본당신부님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 28일 주일 두 대의 미사를 봉헌했는데 아이들도 미사에 참례했습니다. 저는 강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동정녀께서는 나타나실 수 있고,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체성사와 성경,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현존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신중하고,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베드로와 바오로 대축일인 다음 날 함께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질문 : 그 날은 다른 주일미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까?

요조 신부 : 수천명이 모여서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밖에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모스타르, 류부스키, 시로키 부리엑, 헤르체고비나, 스플리트, 마까르스까의 해변도시에서 성모님 발현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들과 표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해도 너희는 믿지마라." (마르코 13,21) 저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사건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발현 언덕에 갔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성당이 하루 종일 열려 있었는데도 단 한 명도 오지 않고 모두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 날 성당에 가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 '정말 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인가? 진짜 그렇다면 표징이 아니라 주님을 찾기 위해 성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하지 않는가!...' 주일 오후, 주교관에서 파견된 신부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교님께서 알고 싶어하십니다." 저는 통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 교구 관할이 아닙니까? 주교님께서 직접 확인해보시지요!" 월요일 미사 강론 시간에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은 사적 계시들이었다는 것과 앞으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문을 한 부 복사해서 교구청에서 오신 신부님을 통해 주교님께 보내드렸더니,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때 저는 주교님께 이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말을 다 듣고 난 주교님께서는 "요조 신부님,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루르드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습니다. 저는 루르드에 순례를 갔었기 때문에 루르드 성모님께서 어떻게 발현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1981년 7월 1일)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주교님께서는 당신의 사무실에 모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주교님은 작은 한 시간 15분정도 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모두 녹음 하셨습니다. 주교님은 녹음기를 손에 들고 사무실을 나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00% 확신하는데, 동정마리아께서 분명히 이 어린아이들에게 발현하셨습니다. 나는 루르드나 파티마보다 더 큰 확신이 듭니다. 나는 이번 주일에 성모님 발현에 대해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주교님께서는 메주고리예에서 견진성사를 집전하시면서도 정말 강론은 성모님의 발현을 본 어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기도하고 동정 마리아의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는 주제로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공산당원이 한 짓일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주교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어떻게 저런 확신을 하시

동정마리아께서 분명히 이 어린아이들에게 발현하셨습니다!

(1981년 메주교리에 교구 패리치 주교)

는 걸까? 내가 보지 못하는 무엇을 주교님은 보신 것일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토록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주교님은 좀더 신중하셔야 한다는 제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아니 이 이상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그럼, 신부님께서도 성모님을 직접보고 싶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왜 믿지 못하십니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주교님이 며칠전 신문에 실린 주교가 성모 발현을 조작한 것 같다고 비방하는 그 기사들을 읽어 보셨다면 …!



지어 성당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성모님 발현에 참석하기 위하여 언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짐짐송에게 먹이를 주러 집으로 가거나 가족들의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만 성당을 나가고 나머지는 저와 함께 이 성당에서 기도합시다. 언덕에는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물밀듯이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마치 강물처럼 모두 빠져나가버린 빈 성당에는 고통에 짓눌린 저 혼자 남았던 것입니다! '왜 저들은 이 본당의 사제인 내가 고통당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왜 내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왜 우리 본당 신부님은 성모님의 발현을 믿지 않으시는 거냐구? 신부님만 빼고 모두가 믿고 있는데…"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왜, 불쌍한 우리 신자들은 저렇게 쉽게 동요되는 것입니까? 누군가 한마디만 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믿어버립니다!" 한 본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제가 신자들을 위해 걱정하고 있는데 "신부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때도 저는 위로를 얻으려고 성서를 펼쳤는데 우연찮게도 주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표징의 선물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어 먹을 것을 주시고, 홍해를 열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 "사랑하는 야훼, 주님이시여,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당신이 목적지까지 인도해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는데 이곳의 신자들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해 있는 저에게 그 순간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나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어라!" 오! 그 순간을 어떻게 말로 설명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성서를 놓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후에 성당 중앙통로를 가로질러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M**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물밀듯이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마치 강물처럼 모두 빠져나가버린 빈 성당에는 고통에 짓눌린 저 혼자 남았던 것입니다! '왜 저들은 이 본당의 사제인 내가 고통당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왜 내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왜 우리 본당 신부님은 성모님의 발현을 믿지 않으시는 거냐구? 신부님만 빼고 모두가 믿고 있는데…"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왜, 불쌍한 우리 신자들은 저렇게 쉽게 동요되는 것입니까? 누군가 한마디만 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믿어버립니다!" 한 본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제가 신자들을 위해 걱정하고 있는데 "신부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때도 저는 위로를 얻으려고 성서를 펼쳤는데 우연찮게도 주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표징의 선물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어 먹을 것을 주시고, 홍해를 열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 "사랑하는 야훼, 주님이시여,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당신이 목적지까지 인도해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는데 이곳의 신자들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해 있는 저에게 그 순간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나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어라!" 오! 그 순간을 어떻게 말로 설명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성서를 놓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후에 성당 중앙통로를 가로질러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M**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질문 : 그 기사는 공산당 기자들이 썼습니까?

요조 신부 : 그렇습니다, 신문은 당기관지였으며 공산당기자들이 썼는데, 이 일은 종교적 민족주의자들이 정부를 뒤엎으려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메주교리에의 사건은 민족주의 문제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때부터 주민들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박해와 감금, 학대가 시작된 겁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잡아들였고, 더 이상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으며, 불안에 떨지않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을은 성모님이 발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순례자들이 곳곳에서 몰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설새 없이 찾아와서 수많은 질문을 하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순박한 주민들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주일 미사중, (1981년 7월 5일) 나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모두 함께 이곳에서 묵주기도를 합시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손이 무엇을 향해 움직이고 계신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오를 저지룰 때 하느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들은 진지하게 내 말을 들었으며 그날 성당안과 광장은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나, 저녁 6시 조금 전에 기도가 끝나자 사람들은 무리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첫 토요일 봉헌

2008년은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을 통하여 더욱 많은 이들이 성모님께 봉헌되는 은총의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세례를 받은지 3년 된 교우로서 메주고리에지를 통하여 성모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매 호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한자도 빠짐 없이 읽고 있습니다. 저에게 소식지를 보내 주신 성모님과 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1호 연옥에 대한 기사를 읽고 가족들을 위하여 시어머님과 함께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첫토요일을 봉헌하기로 했는데 그 의미를 알면 좀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을 청합니다.

-밴쿠버의 데레사-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어머니, 인류의 참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서는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세 어린이, 루시아, 히야친타 그리고 프란치스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6월 13일, 7월 13일, 8월 15일, 9월 13일 그리고 10월 13일 6번 발현하셔서 앞으로 세상과 교회가 겪게 될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목주를 가슴 부분에 서로 맞잡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은 하늘에서 왔고 천국과 연옥 그리고 지옥이 존재하며 세 어린이에게 자신들을 하느님께 봉헌하여 죄인들의 회개와 죄의 배상을 위해 고난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양 떼를 치던 목동으로서 점심 식사를 하고나면 목주기도를 바치던 세 어린이는 16세 어린 처녀의 모습으로 발현하신 성모님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월 첫 토요일을 기념하는 신심은 바로 이 발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성모님께서

세 명의 발현목격증인들에게 주신 비밀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파티마에서의 세 번째 발현날인 1917년 7월 13일 세 어린이에게 세 가지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매월 첫 토요일 신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공포로 사람을 질리게 할 만큼의 무시무시한 지옥에 대한 환시였습니다. 루시아는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손을 펴자 그곳으로부터 빛이 반사되어 지구 안으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지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마치 불의 바다로 들어간 듯, 사람의 모습을 한 악마와 영혼들이, 그 불 속에 잠겨 있는 듯, 연기 구름과 함께 불꽃에서 나와 불꽃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며 불속에서 떠다니는 투명한 검정이나 청동색처럼 보였으며, 고통과 절망의 부르짖음 속에서 커다란 불 속의 불티와 같이 무게도 평형감도 없이 이리저리 마구 떨어졌는데 우리에게 공포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악의에 찬 수많은 무서운 마귀들과 알 수 없는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불 속의 검뎡이처럼 속이 들여다보였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봉헌, 제1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제 2차 세계 대전의 발발, 전쟁과 기근 그리고 교황과 교회에 대한 박해로 드러나는 하느님의 징벌,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러시아의 봉헌, 첫 토요일 배상의 영성체, 성모님의 티 없으신 승리 그리고 평화의 도래 등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세 명의 목격증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의 영혼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이 세상에 내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신심을 전하기를 원한다. 만약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며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느님께

나는 이 세상에 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전하기를 원한다.

죄짓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더 큰 전쟁이 교황 비오 11세 재임 시에 일어날 것이다.

그분은 전쟁, 기근, 그리고 교황과 교회에 대한 박해 등의 수단으로 이 세상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나는 내 티 없는 성심에 러시아를 봉헌할 것과 매월 첫 토요일에 배상의 영성체를 요청하러 다시 오겠다. 만일 나의 요구들을 지키면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그들의 오류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교회는 박해를 받고, 의인들은 순교를 당할 것이며, 교황은 많은 고통을 받고, 여러 민족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나의 티 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다. 교황은 러시아를 나에게 봉헌할 것이고, 그들은 회개하여 평화의 시기가 세상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복되신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공산주의 러시아는 무신론과 유물론의 오류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일으켰으며 2차 세계 대전에서는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이념은 세계 곳곳에 그 악마의 씨를 뿌렸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소련에 흡수되어 지도상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1945년 한 해에만 추기경을 포함한 800명이 넘는 사제들이 체포되고 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파티마의 두 번째 비밀은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1984년 3월 2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전 세계 모든 주교들에게 러시아 봉헌을 위해 당신도 합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시고 실제로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전 세계 주교들과 함께 러시아를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 해인 1985년 소비에트 연방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등장과 함께 무너져 버렸고, 그 이후 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모든 공산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새로운 민주 국가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예견하신, 결국은 당신의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한 구체적인 실현이었습니다.

위에 소개한 파티마 두 번째 비밀을 통해 매월 첫 토요일 배상의 영성체를 요구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성모님의 약속은 1925년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1925년 12월 10일 목요일 저녁, 저녁 식사 후에, 루시아 수녀(그 당시에

스페인 폰테베드라에 있는 도로테아 수녀회의 청원자였음)는 그녀의 수도원 방에서 어린 예수님과 동정녀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성모님은 가시로 둘러싸인 심장을 그 젊은 수녀에게 보여주면서 다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나의 딸아, 나의 심장은 배은망덕한 자들의 독성과 배은 행위로 매순간 찢른 가시들로 둘러싸여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다오. 매달 첫 토요일, 다섯 달 동안 고백성사를 보고, 성체를 영하고, 15단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배상하는 마음으로 15분간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는 그들의 임종시에 영혼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그들을 도울 것을 약속한다."

하늘의 왕과 모후에 의해 맡겨진 이 사명을 받고서, 18세의 수녀는 자신의 고해 사제인 리노 가르시아 신부는 물론 원장수녀에게 그것을 즉시 알렸고, 이 새로운 신심을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후에, 그녀는 페레이라 로페스 주교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깊이 있게 편지를 써 보내곤 하였는데, 그것은 그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놀라운 은총의 새 선물을 속히 전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루시아 수녀는 매월 첫 토요일 신심이 영혼 구원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신심이 성교회의 공적인 인준을 얻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수성심과 성모성심을 위로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전 세계적이고 연속적인 배상 행위인 매월 첫 토요일 신심은 루시아 수녀와 다른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루시아 수녀는 자신이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 이러한 신심행위를 통해서 너무나도 온화하신 우리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이 알려지고, 사랑 받으며, 위로받는 것을 보는 것" 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매월 첫 토요일 신심은 파티마 성모님 발현과 그 비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은 극에 달한 인류의 죄와 그로 인해 인류가 겪게 될 갖가지 어려움과 재앙을 예언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매월 첫 토요일 신심은 우리 자신과 인류의 죄를 보속하고, 회개의 길로 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성모님께서 직접 주신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인간의 죄로 인해 상처받고 모욕당하시고 고통 받는 예수님의 성심과 성모님의 성심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이 신심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는 회개와 구원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M**

답변해 주신분 /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캘카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

내 삶의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저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자주 보았고, 또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대한 변함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느님을 단순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의미 있는 기도는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하느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보십시오.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며 높여 드리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소서."

그분의 뜻을 행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청하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며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악에서 해방되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저희에게 잘못된 이들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말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훌륭한 기도를 하자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바로 그 간절한 바람을 우리도 지니면 됩니다. 우리는 삶의 기복을 겪기 마련이고, 병들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수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미를 드릴 때도 있고 참회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간단한 일들을 되려 복잡하게 만들듯이 기도마저도 때로 복잡하게 만듭니다. 기도란 여러분과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 오묘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어느 계절에나 딸 수 있는 과일과 같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사랑을 할 수 있으며,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느님은 위엄에 찬 분으로 창조하신 만물을 주재하는 위대한 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느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아버지를 사랑하여라."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맑고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며, 하느님을 뵈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평화로운 관계를 지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께 왔사오니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저에게 눈길을 잠시만 보내 주십시오. 제 일터에서도 주님의 우정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소음 가운데서도 제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주님의 축복을 주시어 제 모든 생각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게 힘을 주소서." **M**

(샘에서 생기를에서 발췌)





어머니! 제게 힘을 주십시오. 최후의 만찬 전에 어머니와 하직인사를 나누는 예수님

나는 과일절 음식을 먹기로 되어 있는 만찬실을 본다. (...) 내가 지금 보는 방에는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계신다. 막달레나와 야보고와 유다와 시몬의 어머니 마리아를 알아 보겠다. 그 여자들이 걸옷을 벗는 것을 보면 요한에게 인도되어 지금 막 온 모양이다. 그들은 걸옷을 개켜서 방안 여기 저기에 널려 있는 등없는 걸상에 놓으면서 일변 떠나가는 사도와 그들이 도착하자 달려 온 어떤 여자와 남자에게 인사를 한다. 이 남녀는 집주인이고 나자렛 사람의 제자 이거나 동조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들이 마리아에 대하여 매우 친절하고 경의를 표하면서도 친숙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파란 옷을, 매우 짙은 청록빛 옷을 입고 계시다. 머리에는 흰 베일을 쓰고 계신데, 머리까지 덮는 걸옷을 벗을 때에야 그것이 보인다. 그분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 비록 부드럽게 웃고 계시지만 매우 서글퍼하시고 매우 창백하시다. 그분의 움직임까지도 생각에 잠긴 사람의 몸놀림같이 지치고 부자유스럽다. 병식 열린 문틈으로 집주인이 현관과 만찬실을 왔다 갔다 하며 기름 램프의 나머지 화구(火口)에 불을 붙여 방을 완전히 밝히는 것이 보인다. 그런 다음 가서 행길

로 난 문을 여니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들어오신다. 밤 어두움이 높은 집들 사이에 있는 좁은 길에 내려 덮이는 것을 보니 저녁이라는 것을 알겠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모두 데리고 오신다. 예수께서는 늘 하시는 것과 같은 말로 주인에게 인사하신다. "평화가 이 집에 있기를." 그리고 사도들은 만찬실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신다.

경건한 여자들은 매우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와 아들을 마음 놓고 계시게 하려고 문을 닫고 나간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껴안으시고 이마에 입맞추신다. 마리아는 우선 아들의 손에 입맞추시고, 그 다음에는 오른 뺨에 입맞추신다.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앉게 하시고 당신도 어머니 곁에 있는 등없는 의자에 앉으신다. 예수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앉히시고 어머니가 앉아 계시실 때에도 계속 손을 잡고 계신다. 예수께서도 비록 웃으려고 애쓰시지만 골똘하게 생각에 잠겨 계시고 침울하시다. 마리아는 몹시 불안하게 아들의 얼굴 표정을 살피신다. 은총과 사랑으로 이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가엾은 어머니!

우리를 몹시 괴롭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용서하십시오.

그분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찌푸러지고 눈은 어떤 무서운 고통에 대한 내적 환상으로 커진다. 그러나 마리아는 고통을 요란스럽게 나타내지는 않으신다. 어머니도 당신께 말씀하시는 아들과 같이 위엄이 있으시다. 예수께서는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기도를 드려 달라고 부탁하신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한테서 힘과 위로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고통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의 품이 필요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다시 전의 어머니의 어린 예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스승이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나자렛에서와 같이, 사생활을 끝내기 전 나사렛에서와 같이 오직 어머니의 아들일 뿐입니다. 제게는 어머니 밖에 없습시다.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은 어머니의 예수의 의리있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는데에도 용맹하지 못합니다. 오직 악한 사람들만이 악을 행하는 데에 꾸준하고 강할 줄을 압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게 충실하시고, 이 시간에는 어머니께서 제 힘입니다. 저를 많이 혹은 적게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어머니 밖에 없습시다.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로 제 힘을 돌구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해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 많은 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동안 축제나 죄에 대한 생각에 골몰해 있습니다. 이 시간 후에 많은 것이 죽을 것입니다. 이것들 가운데 그들의 인간성은 죽을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멸망해서 어떤 힘도 최소한 뉘우침으로도라도 이끌어 올 수 없는 그 사람만 빼놓고는 모두가 제게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당장은 제 승리가 이보다 더 가까운 때가 일찍이 없었다고 믿으면서 기뻐하는데, 저는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 들은 호산나 소리에 그들은 취해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시간을 위해서 왔고, 초자연적으로는 이 시간이 오는 것을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자아(自我)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쓴 잔이 배반, 부인, 잔인, 하느님께 대한 모독의 말, 버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 힘을 돌구어 주세요. 만민이 기다리는 사람을 하느님의

성령에 의해서 세상에 주시려고 어머니의 기도로 하느님의 성령을 어머니께로 끌어오신 때와 같이, 지금은 제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어머니의 아들에게 끌어와 주십시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게 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세요. 함께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몹시 괴롭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용서하십시오."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어머니의 발 아래로 미끄러지듯이 무릎을 꿇고 허리를 꺾고 쳐다 보신다.

마리아는 마음 속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위하여 얼굴을 약간 들고서 비명을 지르지 않고 우신다. 눈물이 창백한 뺨을 흘러내려 가슴과 예수의 머리에 떨어지는데, 마침내 마리아는 예수를 가슴에 꼭 껴안으신다. 그런 다음 마리아는 마치 강복을 주려는 것처럼 예수의 머리에 손을 얹으신다. 그런 다음 몸을 기울여 예수의 머리칼에 입을 맞추시고 쓰다듬고 예수의 어깨와 팔을 쓰다듬으시며, 예수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당신에게로 돌리시고 가슴에 꼭 껴안으신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예수의 이마와 뺨과 고통스러운 눈에 입맞추시고, 그 지쳐빠진 가없는 머리를 어린 아이이거나 한 것처럼 조용히 흔드신다. 그것은 마치 마구간에서 새로 나신 하느님이신 아들을 흔들어 주는 것을 내가 본 것과 같은 광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노래를 부르시지 않는다. 마리아는 그저 "아들아! 아들아! 예수야! 예수야!" 하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어떻게나 애절한 목소리로 부르시는지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다시 일어나신다. 예수께서는 겹옷을 가다듬으시고, 아직 울고 계시는 어머니 앞에 서 계시며, 이 번에는 당신이 어머니에게 강복하신다. 그리고는 문 쪽으로 향해 가신다. 그러다가 나가시기 전에 "어머니, 제 과일절 음식을 먹기 전에 또 오겠습니다. 저를 기다리시는 동안 기도드리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나가신다. **M**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 발췌
(원제 : Il Poema dell'Uome-Dio)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어머니 마을 주소 Queen of Peace Missionary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570-722-1657, 610-366-9612 • Fax. 610-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홈페이지 : www.qpmm.org



예수님, 당신을 흠송합니다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지음
신경남 스테파노 옮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카푸친 작은 형제회)



1) 예수님, 당신께서는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이시기에 저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시기에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시간이 당신의 손에 놓여 있기에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2) 예수님, 마리아께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모든 면에서 당신과 함께 하셨기에 당신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마리아와 함께 저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마리아께서 지상에 계실 때 당신은 언제나 그분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분의 시간의 완성이었고, 당신은 그분 생애의 모든 순간, 시간, 날들, 해들의 시작이고 마침이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메시지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그러면 너희는 기도 중에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신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의 부르침에 완전히 자유롭게 응답하기를 바라신다. 어린 자녀들아, 그러므로 평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하루 중 시간을 따로 내어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하고 있다. 늘 깨어 있어라.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느님을 만날 때마다 늘 기뻐할 것이다. 나의 부르침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8년 11월 25일)

(...)어머니, 당신께서 이 순간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저를 위해 전구하고 계시고,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기쁘

게 만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예수님, 이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순간 저는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흠송합니다.

(침묵중에 이 기도를 반복한다.)

3) 예수님, 당신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셨기에 저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당신께서는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이시기에 모든 시간은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시작이요 마침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흠송하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또한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제가 당신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시니다. 오 예수님, 제가 시간의 흐름을 깊이 묵상하는 동안 제가 사도 바오로께서 하신 말씀의 깊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 이것은 하느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에페 1,3-7)

- 예수님, 당신께서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당신 자신을 위하여 저를 뽑으셨으니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침묵중에...)

4) 예수님, 성부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이 지상에서의 모든 날, 월, 해를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저의 시간은 당신의 영원한 시간 안에 잠겨 있기에 참으로 복되이다. 오 예수님, 당신은 저의 모든 날들의 시간 속에 함께 계



십니다. (...)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준 세례에 대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 제 생애의 모든 날들, 저물어가는 올해의 모든 날들에 대해 특별히 당신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모든 순간은 유일하고, 모든 순간은 저에게 당신의 사랑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제가 이를 의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기쁘고 감사하게 당신과 협력했던 모든 순간에 대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 자신만을 위해, 저의 이기적인 목적들을 위해 시간을 쓰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나쁘게 사용한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이제 저는 저의 모든 시간을 당신의 손에 맡기며 시편 저자와 함께 기도합니다. (참고:시편 71,1-9. 21-24a)

- 예수님, 당신께서 저를 구해셨기에 제 영혼은 당신 안에서 노래하고 기뻐하나이다! (침묵중에 ...)

5) 예수님, 당신께서 저의 힘, 길잡이, 생명, 기쁨 그리고 제가 걸어가야 하는 일기기에 저는 당신을 흠송하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 없이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성취한 모든 선함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의 선한 행위가 이기심, 잘못된 지향, 자기중심의 그늘, 자만, 자기만족을 드러내려는 욕망으로 얼룩져있다면 정화시켜주십시오. 실제로 당신께 속하는 모든 영예와 영광을 제가 취했던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 오늘 저녁 저마다의 마음에 감사로움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당신께 노래합니다. 당신의 은총이 언제나 저희에게 내리게 하소서.

(그동안 받은 모든 것에 대해 묵상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6)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또한 저는 이 밤에 제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많은 순간 저는 악이 저를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했으며, 그 악은 제 안에 쌓여 있습니다. (...) 오늘 저녁 저는 이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드리며 당신의 자비에 그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의 의지를 치유시켜주소서. 예수님, 저는 당신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를 모두 내 망토로

감싸 주고,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고 싶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모든 과거를, 너희 마음에 쌓여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께 맡기도록 간청한다. 나는 너희 각자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으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므로 기도하여라, 그러면 기도 안에서 새로운 기쁨의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 너희는 나와 내 아드님이 너희 각자에게 바라는 바를 기쁘게 증거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7년 2월 25일)

-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흠송하고, 저의 과거, 저의 현재 그리고 저의 미래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하여 저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임마누엘이신 저의 하느님 당신과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을 봉헌하고, 회심하며 새로운 각오를 한다.)

7) 예수님, 올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해의 시작에서 당신을 흠송합니다. 저는 마리아께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 지니셨던 것과 똑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사랑 속에서 성부와 당신께서 저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아무런 주저함 없이, 성부의 뜻에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당신께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시간의 은총을 온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오, 예수님, 저는 저의 모든 뜻을 다해 서약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내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오늘부터 새 삶을 살기 시작하라고 너희를 부르고 싶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위대한 계획에 사용하시기 위해, 너희 각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하느님의 계획에서 너희 역할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는 알 수 없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므로 기도하여라. 기도하면서, 너희와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계획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7년 1월 25일)

-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흠송하고, 당신께서 당신의 계획들 속에 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침묵중에 ...)

8) 예수님, 당신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에 당신을 흠숭하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당신을 경배합니다. (...) 당신을 흠숭하지 않고, 당신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당신을 흠숭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지 않거나 진리를 거부하면서 공허한 믿음만을 안겨주는 거짓된 신들을 믿는 사람들 모두의 이름으로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당신 또는 당신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 이들, 폭력과 투쟁을 선호하고 악령의 인도에 자신들을 맡긴 이들의 이름으로 저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 시간의 주님이신 예수님, 올 해가 저와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침묵중에...)

9)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흠숭하고 작년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으나 이제는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모든 희생자들, 집 밖에서 사고를 당하고 각종 재난으로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죽은 모든 이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오 예수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극심한 고통 중에 죽어간 이들, 특별히 마약, 알코올 그리고 에이즈로 인해 희생된 젊은이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10) 예수님, 이 해에 세상을 떠날 모든 이들을 당신께 봉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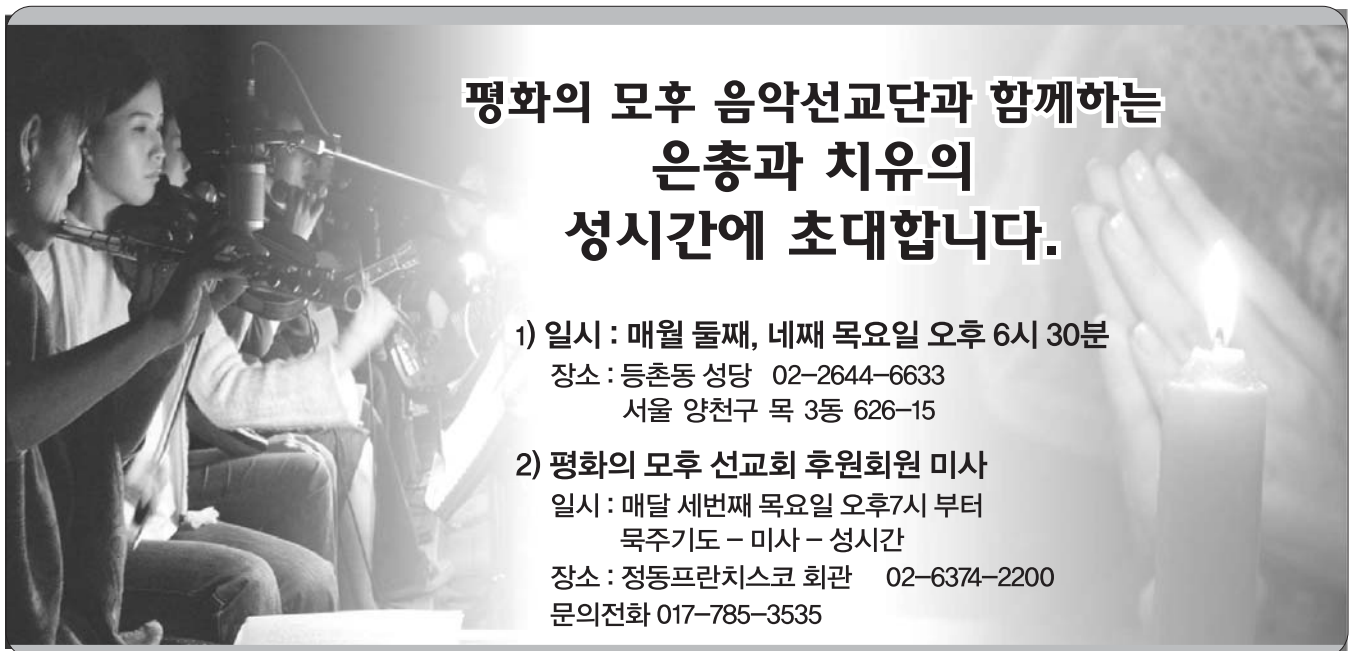
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 당신 나라에 들게 하소서. 그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평화롭게 응답하게 하소서. 그 어느 누구도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당신을 만나 뵈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저희 모두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그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 저와 다른 모든 이들이 당신께서 마태오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참고: 마태 24:45-51)

(이제 당신이 죽는 그 순간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기도를 바친다. 당신의 임종 순간에 당신 가까이에 있게 될 사람들을 또한 주님께 봉헌한다. 그리고 지금 서서히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11) 축복기도 : 하느님 아버지, 저는 성령 안에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당신의 손으로 저를 이끌고 시간과 공간을 통해 저를 인도하시어 치유시켜주시고, 제가 언제나 충실하게 하소서. 저의 가정, 교회, 제 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을 축복하소서. 저희에게서 모든 악을 몰아내시고, 저희에게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 당신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소서! 당신은 알파이시며 오메가요, 시작이시며 마침이시니 모든 세기와 영원이 당신께 속하나다. 아멘.

(다음의 내용들을 묵상하기를 권한다. - 시편 103: 1-18 / 메주교리에 성모님의 메시지 : 1988년 3월 35일, 1989년 5월 25일) **M**



**평화의 모후 음악선교단과 함께하는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1) 일시 : 매월 둘째, 네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등촌동 성당 02-2644-6633
서울 양천구 목 3동 626-15

2)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 미사
일시 : 매달 세번째 목요일 오후 7시 부터
목주기도 - 미사 - 성시간
장소 :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02-6374-2200
문의전화 017-785-3535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김훈 올리아노 옮김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서묵상 : 루카 24,1-9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사도 1,3 그분께서는 수난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 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 20,24-29 :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

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뺄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묵상기도 : 예수님! 당신은 부활하시어 저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메주고리예의 십자가산에 오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던 모든 기록을 통하여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저는 예수님이 부활을 제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동경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언제인가는 죽을 운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없는 이상을 채우는 능력이 없기에 결국 죽을 때에는 빈손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고통을 피하고, 끊임없이 즐거운 일을 찾아서 물질만능주의적인 능력과 경력, 성공에 집착하지만 저 깊은 내면에서는 철저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의 부활의 희망을 믿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활을 통해 세상의 한계에 구애 받지 않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축제인, 부활을 통해 유한한 운명의 가난뱅이가 죽음을 넘어선 무한한 삶에 접목되었습니다.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중에도 꿈과 웃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부활로 얻게 된 '희망에 가득 찬 시선'을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는 신체 장애자들, 수명을 다 살지 못한 이들, 불의의 사고로 육체적, 정신적 불구가 된 이들, 비명에 죽어간 어린이들, 외면당하고 인생을 속아 사는 이들, 박약아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줄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성모님! 성모님의 부르심에 따라 저희는 메주고리에 십자가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당신과 함께 걸었고, 여기 용기와

희망을 상징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제 15처에 왔습니다. 아드님의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새 출발, 고통과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아드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삶안에서 이기주의가 없어졌을 때 비로서 가난한 이웃과 빵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살 때마다 삶의 한 가운데에서 부활이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 저희가 오늘의 삶 한가운데에서 부활을 재현하여 희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 전구하여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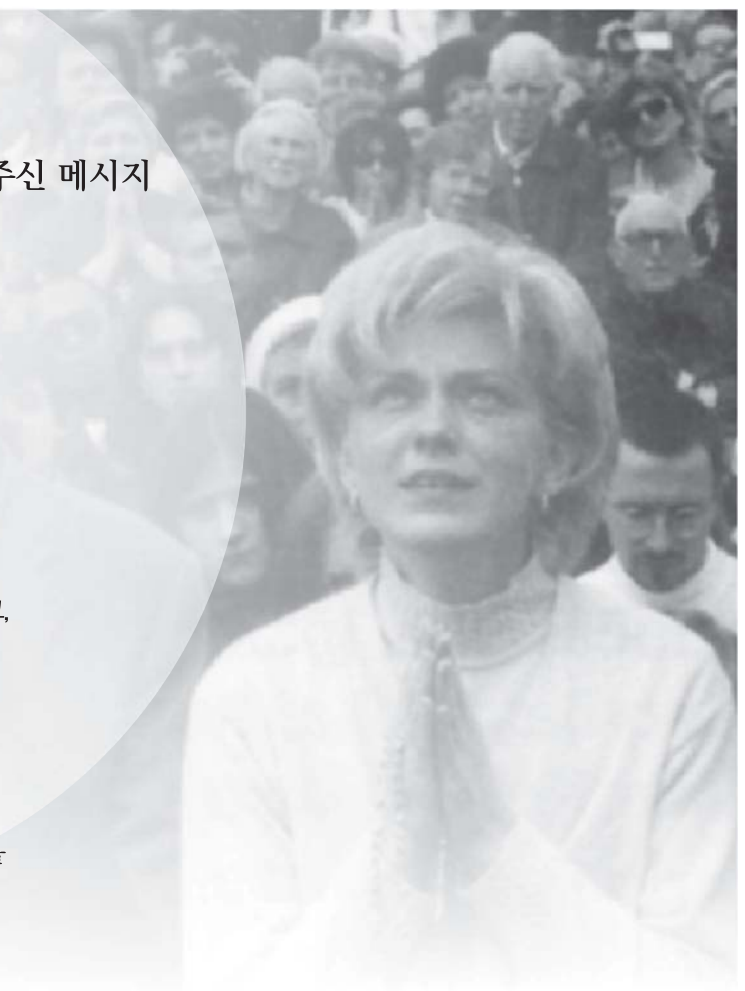
우리 안에서 시작된 부활을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을 저는 굳게 믿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M**

(그동안 성모님과 함께 하는 십자가의 길을 연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김훈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주-)

2008년 1월 2일 메주고리에 성모님 평화의 모후께서 미리야나 솔도에게 주신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나를 내어준다.
자기 자녀를 위해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엄마처럼,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 투쟁한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너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기 위하여, 너희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청한다.
너희가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할 수록,
너희는 내 아들과 그분의 선물을 더욱 많이 받게 되고,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이들이 내 아들에 대한 사랑과 나를 통해
너희를 알아보기에 되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고맙다."

성모님께서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성물들을 축복해주셨고, 우리들의 목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단식하라고 요청하셨다.





저자 : 잔 코넬(Jan Connell)
 옮긴이 : 신경남 / 카푸친 프란치스코 수도회

우주의 여왕

메시지대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바로 !!
 발현 목격증인 미리야나 -1-

[편집자 주: 목격증인들과의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다음 자료는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모든 발현 목격증인들의 인터뷰는 녹음되고, 녹취 되었으며 언어 장벽 때문에 통역을 통해 인터뷰들이 진행되었다. 말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목격 증인들의 취지에 근접하기 위해 작가는 영어로 작성된 인터뷰 원고를 가지고 다시 메주고리예를 방문하였다.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한 미리야나는 혼자서 영어 원고를 읽을 수 있었으며, 다른 목격증인들은 통역이 크로아티아 언어로 읽어주는 원고를 들고 확인을 해주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을 때 메주고리예 성 야고보 성당의 토미슬라브 페르반 신부가 원고를 면밀히 검토해 주었다.]

여섯 명의 발현목격증인 가운데 미리야나 드라기체비치(Mirjana Dragicevic)는 성모님의 매일 발현이 제일 먼저 끝난 사람이다. 1982년 성탄절에 성모님께서는 미리야나에게 열 번째 비밀에 관해 알려주셨고, 지금은 미리야나의 생일과 특별히 필요한 때 발현하신다. 또한 최근에 성모님께서 열 가지 비밀에 대한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미리야나를 돕고, 압박해있는 비밀들의 실현을 준비시키기 위해 매일 2일 그녀에게 발현하고 계신다. 성모님께서는 페타르 류비치치(Petar Ljubicic) 신부를 통해 메주고리예에서 한 번에 하나씩 비밀을 세상에 밝히게 될 사람이 바로 미리야나라고 말씀해주셨다. 류비치치 신부는 예언된 사건들이 일어

나기 3일전에 미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밀들을 알려줄 것이다. 최근 성모님께서 미리야나에게 발현하실 때면 매우 슬픔에 차서 메시지를 전달하시곤 하는데, 성모님께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반복할 때마다 미리야나는 매우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나는 너희와 함께 해왔다. 너희 자녀들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라. 너희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느님의 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도 없으며, 천국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성모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동안 미리야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내렸다.

"나는 나와 함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나를 도와달라고 너희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나를 아주 조금 밖에 도와주고 있지 않다. 너희는 이웃에 대한 자비심이나 사랑에 무척 인색하구나. 조금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사랑을 주셨고, 또 너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지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를 통해 화해하고, 너희의 영혼을 정화시켜라. 그리고 손에 묵주를 들고 기도하여라.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을 잘 참고 인내하여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어떻게 인내하시면서 고통을 겪으셨는지 기

억하여라."

성모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절박한 표현으로 말씀을 끝맺으셨다. "비신자들에게 너희의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 너희의 모범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나의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미리야나는 발현목적증인들 가운데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메주고리예를 떠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녀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 미리야나는 국제도시인 사라예보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 살고 있는 외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미리야나는 십자가 목걸이 때문에 놀림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녀의 신앙에 대한 시련이었으나 미리야나는 더욱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봉헌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그녀는 메주고리예를 찾는 순례자들을 돕고 있는데, 특히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삶의 목표나 목적이 없는 젊은이들을 위해 특별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미리야나는 상냥하고 지적인 균형감각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내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동시에 그녀는 세상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 매우 민감한데, 그녀와 함께 있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가 무엇 때문에 고뇌하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야나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다. 미리야나는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한다. 어린이들에게 둘러 쌓일 때면, 그녀의 습관적인 내향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행복에 잠기곤 한다.

질문 : 미리야나, 1982년 성탄절, 당신에게 성모님 매일 발현이 끝난 이후에도 인터뷰를 많이 하셨습니다까?

미리야나 : 인터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 현재는 얼마나 자주 성모님을 뵙고 계십니까?

미리야나 : 매년 저의 생일인 3월18일에 성모님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2일에 성모님께서서는 저와 내적 담화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질문 : 내적 담화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리야나 : 당신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성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질문 : 당신의 귀로 직접 듣는다는 말씀입니까?

미리야나 : 네 그렇습니다.

질문 :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의 남은 생애 동안 성모님과 대화를 나누실 겁니까?

미리야나 : 성모님께서서는 제게 매우 특별한 몇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생일날과 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발현하실 것입니다.

질문 : 그러면 당신의 전 생애 동안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씩은 발현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미리야나 : 네.

질문 : 그렇다면 미리야나,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게 될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미리야나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세상에 발현하시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입니까?

미리야나 : 네, 성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리야나 : 성모님께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여기 이곳에 계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알려주신 비밀들이 이행될 때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질문 : 힌트를 좀 줄 수 있습니까?

미리야나 : 기도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질문 : 매년 당신의 생일날에 성모님께서 세상을 위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리야나 : 그렇습니다. 성모님께서 저의 생일날에 주시는 메시지들은 세상의 모든 당신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생활 속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때면 성모님은 발현을 통해 그 어려움에 응답하십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동안 당신의 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니까?

미리야나 :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에 존재하고, 제 몸 또한 땅을 딛고 서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질문 : 그럼 발현 동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지각할 수 있습니까?

미리야나 : 저는 성모님의 존재 외에는 어떤 것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질문 : 처음 발현이 시작됐을 때 느꼈던 당신의 감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리야나 : 발현이 시작된 첫날, 이반카가 저한테 성모님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작 15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성모님께서 천국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모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티마나 루르드에 관해 전혀 들은 바도 없었고, 성모님의 발현에 관해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반카가 제게 언덕 위를 보라고 말할 때,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집으로 돌아와 있는데 그날 밤 늦게 밀카 파블로비치가 와서 이반카와 저에게 양 모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산에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밀카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이전에 계셨던 바로 그 산 위에 계셨습니다!

질문 : 당신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미리야나 :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음날 같은 시간에 그 산에 다시 가고 싶은 욕구를 느꼈는데, 그 때 가는 도중에 성모님께서 그 언덕으로 올라오라고 저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질문 : 성모님의 부르심을 들었다고요?

미리야나 : 네, 그분은 저희에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희는 언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오라고 저희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질문 :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까?

미리야나 : 저희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둘째 날 저희가 성모님을 뵈러 갔을 때 저희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질문 : 기절을 하다니요? 왜요?

미리야나 :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그분을 제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 발현이 일어날 당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미리야나 : 엄청난 빛이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팔에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셨습니다. 정말 굉장했습니다. 저희는 미국이나 유럽의 젊은이가 아닌 그저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이곳 소녀들은 집 밖 어디에도 **M**적이 없습니다. 집, 학교, 가족 - 이것이 저희 삶입니다.

(이 책은 카푸친 작은 형제회 회원이 되신 신경남 신부님께서 성모님께 바치시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앞으로 연재 될 이 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이들에게 메주고리에 대한 진실이 전해지



평화의 모후 주관 성지순례

일시 : 4월 15일- 27일(12박 13일)

순례지 :

파리 (기적의 메달 성당, 외방선교회, 예수성심성당)

루르드 (기적수침수, 벨라뎃따 성녀 생가 및 기념성당)

메주고리에

(발현산 및 십자가 산, 오와시스 수도원, 체나콜로 공동체, 요조신부의 치유안수, 야고보본당의 저녁예절 참석)

드브로브닉

1700년 동안 썩지 않고 있는 순교자 실바노 성인의 시신이 모셔진 성 브레이슬리 성당에서 한국어 미사봉헌 및 성곽 도시안의 성지 방문

문의 :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회개와 기도를 가르쳐준 메주고리에의 기적

김미희 다리아 / 토론토 한인성당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곳이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친숙해 있던 메주고리를 나는 드디어 가게 되었다. 이스라엘과 루르드 순례를 2번 다녀온 나는 성지순례가 처음이 아니었으므로 크게 설렘도 없이 친구들과 일행이 되어 순례겸, 여행겸 8박 9일의 일정으로 10월 22일 토론토를 떠났다. 기적이 26년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그곳에 가면서, 외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에 마음 쏟지 말고 내적에 충실하는 나름대로 마음 준비까지 하면서…….

나도 묵주기도의 진맛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비행기에 오르며 순례가 시작되었다. 메주고리에 도착한 나는 시차와 여행의 피곤함으로 특별한 신앙적인 느낌없이 2일정도 지났다. 성지에 왔는데 최소한 고백성사는 해야겠다는 의무감이랄까? 중압감이랄까? 이런 저런 생각에 평상시에 하던대로 대충 준비하고 성사를 숙제 하듯이 끝내고,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일정에 따라 순례는 계속되었다. 요조 신부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십자가산과 발현산에서 안내자가 전하는 성모님의 메세지중 "회개"라는 단어가 유난히 나의 가슴에 새겨짐을 느낄 수 있었다. 성모님의 말씀 곳곳에서 베어나오는 회개의 중요성의 무게가 나에게 실려오면서, '어쩌면 나 자신이 회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 아닌가?' 하고 의문이 생겼다. 그때부터 나는 어머니

께 화살기도를 바치며 진실된 회개를 하게 해 달라고 청하기 시작했다. 우리 그룹은 대부분 친구들이었으므로 자유 시간에도 함께 다니곤 했는데 3일째 되던 날 밤에 모두 청동 십자가에 가자고 해서 늦은 밤이라 가고 싶지 않았지만 따라나섰다. 특히 외적인 기적을 찾아 마음을 뺏기고 싶지 않았기에 청동십자가에서 기적수가 나온다고 손수건들을 준비해가는 친구들을 보며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향했던 것이다. 밤이 꽤 깊었는데도 길게 늘어진 줄에 합류하여 기다렸는데 드디어 우리들 차례가 되었다. 키가 제일 큰 미카엘라가 올라가서 팔이 겨우 닿는 위치에 있는 예수님 무릎 위에서 감질나게 송울송울 맺히는, 땀방울만한 크기로 한방울씩 떨어지는 액체를 손수건에 묻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나누어주는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미카엘라에게 내 손수건을 받기 위해 서있던 나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다.

5년전에 다리를 크게 다쳐 지금까지도 통증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액체가 흘러 나오는 주님의 다리를 보는 순간 사고 났을때의 극심한 그 통증이 다시 나에게 전해져왔다. 저 극심한 고통을 감수 하시며 불쌍한 인간, 즉 나를 치유 하시고저 하시는 그분의 애뜻한 사랑이 힘들게 맺히는 한방울의 진한 물로 변화시켜 내 보내시는 그 애절함에 눈물이 실재없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모두 내가 있었음을 보면서...

조용히 서서 울고 있던 나는 누군가의 강한 부르심에 이끌려 혼자서 급히 간 곳이 야고보 성당 이었는데, 늦은 밤이라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 갈 수가 없었다. 몸을 제대쪽으로 향하고 성당옆에 있는 벤치에 앉자마자 나의 절실한 회개가 시작되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돌발적인 상황이었는 데 분심이나 망설임 또는, 주저함도 없이 온전히 회개에 몰입되었다. 회개를 하는데도 은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나눔의 삶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나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모두 내가 있었음을 보면서, 그동안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주님과 어머니께 고백하면서 한없이 울었다.

어느새 성모님께서 나의 오른쪽발 옆에 오시어, 한 무릎은 땅에 놓으시고 다른 무릎은 세우시어 벤치에 앉아서 허리를 굽히고 통회하는 나의 양손을 잡으시고, 격려해 주심에 나는 더욱 서러워 아기처럼 울며 잘못했다고 빌었다. 일상의 삶에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그 행위의 내면에는 나의 교만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어떤 삶이 진정으로 겸손한 삶인지 다시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었다. 유아세례를 받고 비교적 교회 안에서 살아왔지만, 54년동안 이런 절실한 회개는 처음이었다. 시간이 꽤나 흘렀는지 한기가 느껴져 침소로 가는 도중에 걱정이 되어 나를 찾아 나선 카타리나 언니를 길에서 만나 같이 침실로 돌아 왔는데 그날 밤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그 회개가 있는 후, 나에게 찾아온 변화는 침묵하며 내적으로 주님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묵주기도를 드릴 때도 기쁨과 평화를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후 고백성사를 다시 보았는데 진실된 회개를 하였기 때문인지 고백소에서 마구 눈물이 쏟아졌고 이런 체험을 통하여 고백성사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다. 성당에서 있는 모든 예절도 예전과 다르게 신비를 느낄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메주고리에서 몇일 동안 손님으로 지냈던 것과는 달리 주인이 되어 수동적인 기도 자세가 능동적으로 변화 되었고 이제는 하느님안에서



성모님과 함께 열심히 살고 싶다는 열망도 커졌다. 회개도, 기도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나의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예로 우리들을 초대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있었는지 꿈속에서 있었는지 현실과 다른 세계에 있던 우리 일행은 아쉬움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메주고리예 순례에서 얻어진 열매로 '기도'는 현실에서도 계속 되고 있다. 메주고리예를 가기 전, 나는 기도 시간이 5분을 넘기가 어려웠고 묵주기도는 특별한 지향이 없을 때는 1단만 숙제하듯 했는데 지금은 아침기도가 적어도 1시간이고 묵주기도를 10단에서 15단을 드리며, 저녁기도와 일을 시작 하기 전 기도 등 하느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전에 비해 많이 길어졌다. 기도 시간이 길어졌다는 의미는 기도를 의지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체험한다는 의미이므로 하느님의 현존을 느낀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 생각된다. 회개와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며 체험한 것이 메주고리에서 나에게 일어난 거대한 기적이다. 다녀온지 2주 되었는데 또 가고 싶은 그리움이 생기는 그곳은 평화의 마을 메주고리예!

새색시가 친정 나들이 가듯 설레임과 그리움을 안고 어머니께로 향하는 다음 나들이를 준비해 본다. **M**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발행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편집인: 남 그레고리

지도신부: 박창득 몬시뇰(뉴욕대학교)

: 신경남 신부(키푸친 작은형제회)

자문위원단: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중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윤종식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욱(선교학 박사)

한국지부장: 박연자

웹관리자: 윤경만

편집위원: 최레지나, 양의현, 송시원, 남미자, 이규현

인쇄: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동방인쇄



요조 신부님 피정을 다녀오며...

조승현 사베리오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처음 요조신부님 피정을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각오 해라 사베리오~ 각오해라 사베리오~!!) 왜냐하면 소문에 의하면 피정을 마칠 때까지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소문 때문이다. 모든 프로그램들의 시스템이 거의 반 수도자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로마에 도착한 우리 6명은 윤종식 디모테오 신부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하룻 동안 휴식을 가진 후 다음날 오후에 바로 메주고리로 떠났다. 스플릿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로 가는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첫날부터 걱정이 많이 됐다. 물론 그 축복의 땅에서 '어련히 어머니께서 잘 보살펴 주시겠어??' 라는 주문과 함께 묵주기도를 하려고 뒤를 돌아 보니 일행 5명은 어느새 자유로운 자세로 기도에 몰입되어 있었다. 그렇게 혼자 조용히 묵주기도를 하면서 메주고리를 향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7번이나 성모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는데 도대체 왜 나를 장염걸린 환자가 화장실 드나들듯이 이곳에 자주 오게 하실까?!' 라는... 이 고요한 질문으로 이미 그때부터 난 피정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다음날 저녁 은총이 가득한 메주고리에 저녁예절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팀이 도착했다. 미국팀을 맞이하면서 나는 또 캐어본능에 사람들의 짐을 정리하면서 보니 지난 순례 때 함께 했던 낯익은 얼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 짐을 나르면서 사람들과 지나칠 때마다 느껴지는 어색한 인사들의 시작으로 호텔에서 첫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식사를 하면서 언뜻언뜻 보이는 사람들의 어색한 표정들 속에서 무사히 도착했다는 기쁨과 설렘, 경건함.. 하지만 두려움과 공포, 어두움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간 이곳을 자주 오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교감 속에서 느껴졌던 어떤 무언가...

표정들 속에서 난 그 무언가를 또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또, 평범하지 않은 기분으로 다음 날 요조신부님 피정을 참석하기 위하여 단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소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피정에 필요한 짐만 챙긴 뒤 모두가 오후에 요조신부님을 뵈러 길을 떠났다. 우리가 머물게 될 곳은 내전으로 인해 어렸을 때 큰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있는 여자고아원 이라는 것을 버스안에서 남 그레고리오 회장님을 통해 전해 들었다. 그곳에 도착하여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표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할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다. 상처받은 아이들일수록 많이 예민해져 있다고 생각한 나는 피정 장소에 도착할 때 까지 온통 아이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다. 얼마 후, 피정의 집에 도착해서 짐을 건물에 들이자마자 그곳에서 살고 있는 여자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살짝 긴장한 나는 세계적으로 언어는 달라도 미소는 통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화~~알~~짝 함박웃음을 날려주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 아이들은 마치 태양이 뜨고 지듯이 자연스러운 웃음으로 나를 맞아주는 것이 아니던가... 난 살짝 당황한 나머지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미소가 어떻게 전쟁의 참혹함을 겪었다는 아이들의 표정일 수가 있는가.. 자신의 부모들이 내 앞에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봐야했고 겁탈당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이 웃음 하나만으로도 나를 무엇인가로부터 부끄럽게 만들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불쌍한 아이들의 웃음 하나로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도착한 첫날 부터 난 많은 것을 느끼며 본격적인 요조 신부님의 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단 강당에 모여 자기 소개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곳에 온 목적과 4박 5일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저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 다짐을 들을 수 있었다. 사실 난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온 목적이 그냥 업무적인 일을 하러 온 출장의 의미만으로 느껴졌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요조 신부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선 마음을 열고 서로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꼈던 모든 희노애락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커피샵에서 웃고 떠드는 대화가 아닌,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런 외침으로 들려졌다.

하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보았다. 한줄 한줄 써 나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는 걸 느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 동안 내가 이 순례를 7번이나 오면서 느끼지 못했었던 것들... 음악선교단 일을 하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 가족에 대한 많은 생각들... 등등의 정말 오랜만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인간적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이미 사라지고 고갈된 상태였다. 그때 난 깨달을 수 있었다. 여기에 지금 내가 있는 목적을... 편지지는 어색하기 그지없는 단어들로 채워가지만...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따뜻한 사랑의 교류를... 그리고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며 그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고 확신한다. 피정 오기 전에 가졌던 '어떤 무언가'에 대한 물음표가 해결이 된 것이다. 정말 솔직한 얘기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내가 천주교인이란 것에 대한 자부심을 그때 처음 느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가식없는 대화로서만 가능한 일이란 걸 그때 깨달은 것이다. 동시에 인간적인 생각이 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한국에 돌아가면 또 다시 회색빛속에 사회적인 컬러톤으로 살아가게 될 때 과연 이 따듯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 이 불안감의 질문의 답은 그리 길지않은 시간안에 주님께서 알려 주신다. 요조 신부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마음을 담은 후에 3번 펼쳐서 그 페이지를 읽으라고..." 읽는 것에 약한 나는 순간 한숨이 나왔지만 열심히 읽었다. 구절을 다 읽은 후에 난 정말 놀라서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한참이 걸렸다.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필요하다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겸손과 기도였다.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사향이 좋지 못한 현실속에서라도 그 은총을 받으려면 어디서든 기도를 해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란 깨달음을 ... 나의 노력으로 얻은 답이

아니라... 은총의 커피샵에서 예수님이 주신 답이다. 주변을 돌아보니 사람들의 얼굴들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아픈 환자분들은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고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침묵속에서 난 그렇게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숨쉬고 있었다. 이런 은총을 우리 음악선교단이 다함께 느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절로 느껴졌다.. 물론 주님께서 나한테 답을 주셨지만... 그건 우리 음악선교단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힘든 사회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현존하심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음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방법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행동이나 말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지 슬픔이 될 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화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항상 하지만 그에 따른 노력은 배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피정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하나님께선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계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미움은 내리막 길에 두시고 사랑은 오르막에 두셔서 남을 미워하고 상처 주는건 한번 내려가면 그 가속도 때문에 누구나 쉽게 내려갈 수 있지만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오르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없이 힘들고 외로운 여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요조 신부님 피정을 마치면서 다시금 드는 생각은 무엇이든 희생이 없으면 행복해지기 힘들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감정을 같이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사회생활이나 신앙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 요조 신부님과 당신의 기도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쪼록 보다 많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며 소중한 여정을 마친다.

†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저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환자들과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아직도 당신을 믿고 있지 않아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을 믿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M**

메주고리에 나눔터



"당신은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영광받으소서."

이헌 바오로, 윤희 마리아
(미네소타 한인 성당 교수)

오늘은 자그마한 메주고리에 마을의 평화가 무척 그리워지는 하루입니다. 순례를 다녀온 지 3주밖에 안되었지만, 순례동안 같이 지냈던 가족 같았던 순례자들, 요조 신부님의 나직한 기도소리, 그리고 열정을 담아드리던 야고보 성당의 묵주기도가 한층 그리워집니다. 아마도 새해 첫 날을 메주고리에에서 보냈더라면 하는 바람에서 일 것입니다. 똑바로 설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남편과 함께한 이번 메주고리에로의 순례는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지만 의미가 깊은 순례였습니다. 영혼과 마음 그리고 육신의 치유를 얻고 돌아온 사랑의 여정이었습니다. 또한 참된 사랑과 겸손을 배운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일년 하고도 3개월전에 남편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9개월, 그렇지 않으면 3개월을 산다고 하더군요. 폐는 바람주머니 같은 곳이라 암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기 전까지는 통증이 없어서 대체로 말기에 발견된다고 합니다. 기침이 잦고 감기 증세가 있어서 저희도 가벼운 감기이거나 또는 로스 앤젤레스에서 미네소타로 이사온 직후라 새로운 환경으로의 적응에서 오는 알러지 반응인 줄 알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의사가 아무래도 사진을 찍어야 하겠다면서 병원으로 가게 했습니다. 암은 이미 간으로, 임파노드로, 양쪽 목 그리고 등의 척추로 다 번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암이 진행되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절망 그리고 슬픔으로 한동안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과 사는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삶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결심하며 그때부터 변화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병을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신 데에는 주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묵주기도를 전혀 모르는 틴에이지 아이들 둘과 7살난 딸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9일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일년을 넘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7살 먹은 딸아이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아이였는데, 일년간의 9일기도로 모든 기도문을 한국어로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어찌다 큰 아이 둘이 기도중에 졸고 있을 때면 혼자서 성모송과 영광송을 받곤 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서툰 발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매어집니다. 그 아이의 간절함이 전달되어 오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보여주는 순



수한 사랑과 애절함이 진한 감동으로 전해지곤 했습니다.

남편은 일년이 넘게 받아온 항암 치료로 인해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잘 먹을 수도, 걸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그리고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문과 묵주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하루종일 하느님을 찬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함인지 남편의 얼굴은 평화와 순명으로 밝았습니다. 그러던 중 메추리고리에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난 봄에 갈려고 모두 수속을 밟고 있었지만 막내의 여권이 시간대로 도착이 안되어서 취소한 여행이었는데, 요조 신부님과 피정까지 곁친 알찬 순례인지라 기쁘게 준비했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저는 11일 동안 학교를 비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어렵지 않게 수업을 옮기고 또 묶어서 진행하여서 조금의 차질도 없었습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을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오랜동안의 독한 항암 치료로 인해 남편의 몸은 전체적으로 쇠약해 진데다, 특히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날씨는 자꾸 다가오는데 남편의 몸은 좋아지질 않고 애가 타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불러주셨다면 가고 올 힘도 주실 것이다. 취소한다는 것은 평생의 후회를 남기는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가야만 한다고요. 온 집안 식구들과 친척, 미네소타 성당의 신부님과 교우들 그리고 한국의 가족들, 그리고 미국내의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희집은 매일 매일 애절한 기도와 힘찬

성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속이 평화로 가득 채워짐을 느꼈습니다.



찬양으로 성령의 힘이 넘쳐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몸은 조금씩 힘을 받기 시작했고 조금씩 걷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출발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남편과 저는 뉴욕 공항에 도착하여 박 창득 목사님, 김 알풍소신부님 그리고 남 그레고리오 형제님, 미카엘라 자매님, 그리고 다른 여

러 순례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하고 안심하면서 가족을 만난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마중을 받았습니다. 성모님께서 친히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한 순례객이 찍은 사진에서 성모님의 얼굴이 찍혔는데, 미카엘라 자매님이 그 사진을 저희에게 주는 순간, 살아 계신 성모님께서 같이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불안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싹 살아지고 마음속이 평화로 가득 채워짐을 느꼈습니다.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13시간에 걸친 비행기 탑승과, 또다시 3시간의 버스 여행 동안에 남편은 무척 힘들어했지만, 남편과 저는 그 사진을 줄 곧 보면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찾았습니다. 하루 반에 걸친 여행 끝에 도착한 메추리고리에, 그 도착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성모님께 도착인사를 하는 그 순간, 저의 마음은 감사의 기도와 감동으로 그리고 진한 울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4박 5일간의 요조 신부님의 피정은, 신자라면 평생에 한번은 꼭 받아야 할 피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묵상과 기도에서 묻어 나오는 영혼을 달래주는 시적인 강의, 삶이 주는 심한 육적, 내적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지는 정화된 겸손과 사랑, 성모님과 일치되어 살아가는 분의 향기가 배어 있는 기도와 미사, 함께하는 순간 순간이 치유였습니다. 그분의 존재안에 한 공간안에서 창조자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5일 동안 흘린 참회, 회개, 치유, 그리고 기쁨의 눈물은 참가한 모든 순례

메주고리에 마을의 평화가 무척 그리워지는 하루입니다.

자에게 영적, 정신적, 육적인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평화와, 주님의 항구한 현존을 믿는 굳은 신앙. 이것은 제가 이 피정을 통해 얻은 최고의 수확이었습니다.

요조 신부님은 또한 참된 사랑과 겸손을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사랑은 이웃의 고통을 내가 손수 대신 받겠다고 겸손하게 씩 나서는 것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도해 주겠노라고 하지만 말고, 이웃의 아픔을 대신 지겠다고 주저함 없이 나서는 것. 고통을 제게 달라고 청하고, 그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메주고리에로의 순례를 떠나기 전, 저는 참된 사랑과 겸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참된 사랑이고 그리고 겸손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사랑하여라 그리고 겸손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고 싶었지만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이를 실천하고 살아 가야 하는지, 어떤 겸손이 참 겸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겸손의 실천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손해 보는 듯한 심정이었고, 경쟁에서 뒤지는 것 같아 안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참으로 이기적인 삶에 익숙해온 저 였습니다. 그런 제가 사랑의 참 의미를 배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폐암 말기의 통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남편을 보면서도, 그 고통을 제게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통을 없애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참 기도를 할 줄 압니다. 남편의 고통을 제게 다 주시고 남편을 치유시켜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진심으로 이웃의 고통을 느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기도는 이제 저의 기도 제목에서 가장 나중의 자리에 있거나 또는 다른 기도에 묻히고 맙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로 나의 기도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조 신부님께서서는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정치가나 사상가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로서 헌신하는 사람들인지 반문해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남을 위한 기도,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피정이 시작되던 날부터 그러나 남편은 몸이 더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목과 어깨 그리고 등 부분에 마비 증세가 오면서 음식을 삼키지 못했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피정내내 침대위에 누워서 강의를 들어야 함은 물론, 제대로 참가할 수도 없었습니다. 얼굴 색깔은 검은 자주색으로 변해가고, 힘은 점점 빠지기 시작하여 겁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더해져서 여기에서 큰일을 당하면 어쩌나 하고, 성모님의 사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친구아래 저희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고통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4박 5일을 죽도록 아프고 드디어 피정이 끝나는 날. 요조 신부님의 안수 치유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순간을 위해 그 많은 고통을 인내하고 영혼을 정화하며 준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모님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요조 신부님의 안수는 따뜻하고 평화롭고 감미로웠습니다. 포근한 기운에 휩싸여 한동안 취한듯이 누워있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였다고 합니다. 안수 기도 후 남편의 오른쪽 목의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얼굴 색깔이 본래 색깔로 바뀌면서 뺨주위로는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순례자들도 그 변화를 보고는 놀라와 했습니다. 남편은 확실히 치유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는 비즈카와의 만남은 참으로 경이로운 하느님의 섭리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메주고리에 가기 전 많은 주위 분들이 비즈카의 치유 기도를 꼭 받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분을 만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무작정 야고보 성당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렬로 기다리고 있는 택시



확신을 가진 기도는 믿는 바대로 이루어질거라고 합니다.

들 앞에 가서 비츠카집에 갈수 있는지 기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집에 있는지, 있다고 해도 만나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며, 설상가상으로 어깨 수술과 허리 통증으로 인해 지난 6개월 동안 비츠카는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아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여 다른 소리를 들을까 하여 여기저기 휠체어를 끌고 다니며 택시 기사들에게 물어 보았지만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성당에 가서 성모님께 간절한 청원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비츠카에게 인도하시라구요. 기도 중 성모님께서 택시기사에게 다시 가거라 하는 강한 내적인 이끌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다시 남편과 함께 밖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야고보 성당의 사무실, 안내실, 그리고 심지어는 성물 가게에 가서 비츠카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미사 시간이 다되어서 이제는 포기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 가정도 미사에 참석하려고 오는 중이었던가 봅니다. 그 남자는 저희 보고 비츠카를 만났느냐고 물어왔습니다. 물론 만나지 못했다고 하자 그는 본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주며, 본인은 비츠카와 친구이며 그리고 그 남편과도 잘 알고 지내는 택시 기사인데 오늘밤 만남을 주선해 놓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애타게 비츠카와의 만남을 알아보고 다니는 것을 그 택시 기사가 눈여겨 보고는 우리를 도와 주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 택시 기사와 함께 비츠카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있기로 했던 비츠카 부부는 잠시 출타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우리는 그 택시로 그 운동네를 돌아다니며 비츠카의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부터 아랫마을에 이르기까지 살살이 찾았는데도 차는 없었습니다.

다시 메주고리에 시내로 들어와서 이곳저곳을 살펴 보던중 한 마켓앞에 놓여진 비츠카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 택시 기사는 차의 번호와 색깔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츠카의 남편 혼자만이 물건을 사고 있었는데,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얘기를 다하자 그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 요조 신부님의 피정이 끝나는 날 정도면 비츠카가 한가하여 그녀와 만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정확히 피정이 끝나는 날에 맞추어 묵고 있는 호텔에 전화를 주었고 손수 운전을 하여 우리 일행을 본인의 집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햇살이 밝게 빛나고 바람이 잠자던 아주 따스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츠카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다. 미소가 백만불자리인 비츠카의 따뜻한 영접과 마음을 다해 드

려주던 그녀의 치유의 안수 기도는 우리 일행을 감동시켰습니다. 남편의 치유를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바로 그 순간, 한국에 계시는 남편의 누나에게 주님의 치유의 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님은 미사중이었는데 영성체를 모시고 난 후 주님께서 "이제 바오로는 치유되었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비츠카의 남편은 우리일행을 다시 십자가산 아래로 태워다 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비츠카의 남편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영혼들을 인도한다는 사명에 오히려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겸손과 사랑을 그 두 부부는 아주 많이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십자가산 아래에 도착하자, 모든 순례객들이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지평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6명도 남편의 산행을 위해 가마와 같은 들것을 들고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례자 모두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남편으로 인해서 불편

성모님의 메시지 대로 살기 위해, 하루 하루 새롭게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을 느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본인들의 기도 지향은 뒤로 하고 남편을 위해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자매님들은 그 높은 십자가산을 맨발로 오르고 내리며 그 희생을 남편을 위해 봉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참되고 성숙된 어른만이 가지는 사랑. 그 사랑이 물결처럼 산을 휘둘러 감고 있었습니다. 15처에 다다르자 남편의 얼굴은 표시나게 광채가 나며, 눈동자도 또렷하게 맑아지고, 기쁜 표정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가마에서 내려 혼자 힘으로 정상에 이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박창득 몬시뇰님과 김 알폰소 신부님의 인수기도를 받고 난 후, 다리에 힘이 생긴 남편은 두 청년의 부축으로 산정상까지 본인의 발로 오를수 있었고, 다시 그 두발로 부축을 받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순례자들의 숨죽인 기도를 받고, 응원의 박수 갈채를 받으며, 남편은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던 그 두 다리로 남편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모두 기적이라고 하며 입을 모아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찬미하였습니다. 나중에 자매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산을 오르고 내리던 동안 내내, 태양이 초록색깔로 변하면서 회전하였고 태양주위로 수많은 성체가 계속하여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산을 내려 오면서 초록색깔의 나뭇잎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듯이 밝게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대자연의 창조자이신 하느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영광받으소서." 하며 제 영혼은 계속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이번 순례동안 참으로 많은 은총을 입었습니다. 제가 가진 육체적인 병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의사들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심한 편두통과 어깨 통증이 나았습니다. 하루에 한번은 연구실 바닥에 누워 있어야 하는 그 통증이, 그 통증을 고칠려고 지난 6년간 병원으로, 한의원으로, 마사지 치료실로 일주일이 멀다하고 들락거리던 저의 고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심한 두통과 어깨 통증으로 심한 앓이를 겪고 나서야 일어났고, 그 고통은 하루종일 계속되다가 저녁 때쯤 갈아 앉곤 합니다.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기적 같이 멀쩡합니다. 한동안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서 입이 가벼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도 피정을 하는 동안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에 비하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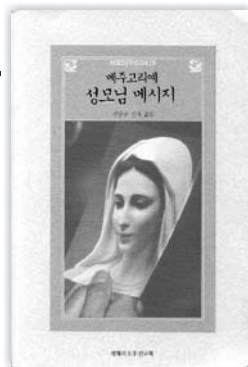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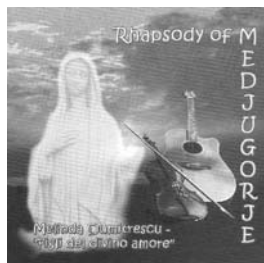
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1일간의 순례 후, "무사히" 집에 돌아온 저희는 영혼과 마음은 기쁨에 설레어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남편의 몸은 계속하여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여 누워 있어야만 하며, 또 폐에 물이 차서 숨이 가쁘고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의 치유의 한 과정이니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고 기도에 더욱 힘을 쏟자고 신경남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치유의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붙잡을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남편은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과 현존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도구로서 쓰여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순례에 함께했던 분들의 사랑이 담긴 카드와 전화를 받고, 기도를 느끼며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느낍니다.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새해 2008년은 천국의 문이 열리는 은총의 해라고 합니다. 어떤 기도이든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청원을 드릴 때, 그 기도는 믿는 바대로 이루어질거라고 합니다. 저희 가정의 제대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며, 그리고 같이 찍었던 단체사진을 꺼내보며, 피정 때 기록했던 노트를 꺼내 읽으며, 순례동안 다짐했던 것들, 특히 성모님의 메시지 대로 살기 위해, 하루 하루 새롭게 새롭게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피정 동안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이, 회개로 흘렸던 그 눈물들이, 가슴으로 같이 나누었던 인생의 아픔들이 무척 그립습니다. 인생이 어렵게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니, 항상 기뻐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며, 굳건히 살아갑니다. 순례 동안 같이 해 주시고 지금도 항상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M**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메주고리에 치유의 음악과 성시간



- 옥수동 성당의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 메주고리에 서적 보급
- 슬라브코 신부님의 책 '성시간' 마음을 다해 내 아들을 흠송히어라'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구입처

- 미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 한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전국 성바로 딸 및 성바로 서점, 혜화동 가톨릭 서원 (02-745-8898)
- 캐나다 : 이 데레사 (403-288-0469),

미주 가톨릭 출판사 서점

세계성서공회와 한국 교회 공동 공용번역으로 새로 나온 성서 안내
(색갈은 검정색, 곤색, 금색, 오렌지색)

성경 1. (1단, 대, 일반) 세계성서공회가 발행한 그리스어 신약 성서 번역

성경 2. (1단, 대, 금장, 색인, 지퍼) 전용박스포장 검정색

성경 3. (1단, 특대, 금장, 색인) 성인용: 큰 글씨체로서 어르신들께 좋습니다.

성경 4. (2단, 대, 금장, 색인, 지퍼)한 페이지에 두 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두께가 얇습니다.

성경 5. (2단, 46판, 금장, 색인, 지퍼) 한국 교회 공용 번역으로 매일 미사 책 크기

성경 6. (2단, 일반 포켓용) 한국 교회 공용 번역본으로 일반 포켓용

성경 7. (2단, 포켓, 색인, 금장, 지퍼) 포켓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편리합니다.

부활절 15% 할인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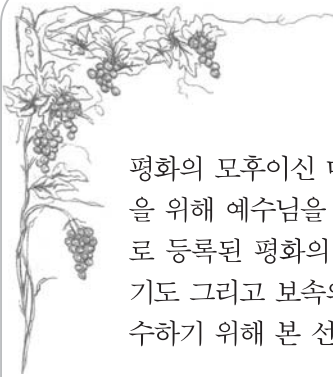
-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류해옥 신부 지음 / 210면)
- 함께 걷는 하느님과 인간 (이영현 신부 지음 / 218면)
- 엄마의 화살 기도 (두숨 역음 / 소책자)
- 생활교리 (개정판 신자 생활 안내 / 562면)
- 그래도 못다 한 말 (김병업 신부 유교 집 / 252면)
- 지혜로운 삶 (짐 포 리스트지음 / 246면)
-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의 가르침 (파올라 지음 / 243면)
- 가족을 위한 엄마의 십자가의 길 (수도회 역음 / 소책자)
- 내 삶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8 단계 (마태오 린 지음 / 303면)
- 미사를 통한 치유 (로버트 드그란디스 지음 / 136면)
- 배꼽 없는 사람은? (권상혁 역음 / 192면)
- 연옥 실화 (막시 푸양 지음 / 190면)

- 뜻을 알면 전례가 새롭습니다 (정의철 신부 지음 / 157면)
- 가장 행복한 악곡 (빅오안 영식 신부 지음 / 125면)
- 내 안에 말씀이 (이동호 신부 지음 / 208면)
- 십자가 성 요한과 함께하는 기도 (웨이 집 지음 / 135면)
- 하느님의 사랑 피에트렐치나의 비오신부 (보스코 지음 / 소책자)
- 행복을 위한 선택 (최기산 신부 지음 / 소책자)
- 상처 입은 사슴 (윌리엄 존슨 지음 / 230면)
- 하느님을 향하여 (최기산 신부 지음 / 소책자)
- 화 제대로 내기 최기산 (버트 게저 지음 / 소책자)
- 아기 예수 데레사의 정신 (리아그르 신부 지음 / 244면)
- 한 송이 해바라기처럼 (고마테오 신부 지음 / 168)
-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이해인 수녀 지음 / 284면)

- 도토리 키 재기 (변 희선 신부 지음 / 소책자)
- 성령의 열매 9가지 이야기 (보비 리드 지음 / 160면)
- 자동판매기가 되신 하느님 (김영진 신부 지음 / 350면)
- 이역하늘 아래서 (이석현 지음 / 185)
- 관상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토마스 키딩 지음 / 175면)
- 하느님 나라는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토마스 키딩 지음 / 139면)
- 주님의 기도로 관상까지 (부르고스 가르멜 수녀원 지음 / 295면)
- 우리가 예수를 찾는 (사는) 이유는? (이재민 지음 / 1 & 2면)
- 토마스 머턴의 씨앗 (토마스 머턴 지음 / 223면)
- 우주를 알면 하느님이 보인다 (정진석 추기경 지음 / 302면)

책 판매 수익금은 박창득 몬시뇰님의 북한 선교를 후원하는 곳에 사용됩니다.

☎ 973-672-6335 팩스 973-672-0509 E-mail : meejoobook@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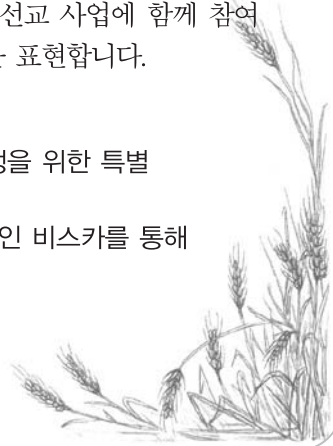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 가톨릭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은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 | | |
|---------------------------------|--------------------------------|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및 무료보급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육성 및 운영 |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 3.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7. 메주고리에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 4.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

본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보내드립니다.
2.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5.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I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원 가입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_____ 년 월 일

E-mail: _____ 소속 분당: _____

회원번호()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모님의 매달 메시지와 소식지를 보내기 원하시는 분은 선교회로 연락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동원, 강동훈, 강미미, 강선충, 강진희, 강재식, 강찬구, 구순의, 권인자, 권섭, 권을, 권혁구, 권스티브, 김건일, 김경섭, 김경희, 김근홍, 김마데라, 김마리아, 김만춘, 김명대, 김남연, 김명주, 김명희, 김베레나, 김부흥, 김삼윤, 김세록, 김선희, 김소연, 김소영, 김시순, 김숙영, 김은순, 김은희, 김옥희, 김올리바, 김예로니에, 김영서, 김영옥, 김유경, 김원희, 김주영, 김주희, 김정자, 김효애나, 김정순, 김정선, 김호영, 김창성, 김태자, 김행순, 김혜정, 김효정, 노마리아, 당계순, 도지영, 류원석, 문방자, 민병임, 민정숙, 민정희, 민헬레나, 반영섭, 박금자, 박난정, 박덕기, 박병철, 박수현, 박숙자, 박승화, 박선영, 박안나, 박영희, 박정원, 박천혜, 박청희, 박효자, 박혜선, 박혜정, 배정희, 백안셀모, 백은하, 석헤레나, 성문선, 손마리아, 손은자, 송모니카, 송정순, 송정희, 신규상, 신순덕, 안연숙, 안영순, 안종영, 안희경, 엄경숙, 엄봉화, 여애경, 연재희, 오경옥, 오글로리아, 오루시아, 오진한, 유대수, 유광문, 유글라라, 유미영, 유춘심, 윤경만, 윤대석, 윤병희, 윤영이, 윤소화데레사, 윤그레이스, 윤성후,

윤혜정, 원용순, 이경성, 이동우, 이마리아, 이미애, 이비비안나, 이상환, 이세실리아, 이순자, 이선화, 이인영, 이인석, 이우익, 이윤영, 이영옥, 이영주, 이현숙, 이은주, 이용호, 이젬마, 이준용, 이지혜, 이카타리나, 이창원, 이윤희, 이혜영, 임효경, 장로사, 장베로니카, 장숙영, 장어거스틴, 잔슨윤숙, 전득기, 전문숙, 전문자, 전연희, 전영자, 전선희, 전진숙, 전종례, 전현숙, 정남순, 정명좌, 정미연, 조국상, 조동진, 조안나, 조영옥, 조영옥, 조정희, 조홍래, 지영덕, 지영진, 진도미니카, 탐영순, 차길완, 최경순, 최리다, 최루시아, 최미카엘라, 최숙현, 최상환, 최스텔라, 최영자, 최윤경, 최윤희, 최혜진, 한미경, 한영옥, 황계자, 황정애, 황혜정, 허정희, 허춘애, 호문숙, 홍세실리아, 홍성심, LA 성 토마스 성당 셋별 Pr. 무명,

Y. Lee, K. Larcenaire, Y. L, Cynthia Ziegmann, Joo D. Kim, Mary K Lee, Tak U. Lee, Heeyul Yoo, Henry Yerger, Myong S. Spence, Angela Fashion, Mir Gospa, Soon Nor, Jalie Myung, Dana Cote, Chong Suk Dardy, Chong Welch, Park Heung C, Mun Sim, Sun Chargualaf, Chong Easton, Jilie Jung, Kisuk Choi, Julie Pyo, David M. Bertro, Wonhui Woodard, Monica Guthard, Chang Taphom, Nam Suh, Theresa M. Oh, Don Brooks, You Son Hunt, Sun H. Lamb, Susan Lee, Chong Sook Peang, Eun Yeong Lee, Susan Saben, Cho Eileen, Okson H Baker, Catherine Park,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지난호 후원금(추가 후원금 포함)	\$12,645.00
지출 :	
메주고리에 소식지, 메시지 목상지, 성탄카드, 인쇄 및 개인 발송 후원회원봉투 인쇄	
통신비, 교통비,	
사무용품 및 기타 비용	\$16,628.36
부족액	- \$ 3,983.36



어머니,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결코 자신에게 신뢰를 주지 마십시오.
 내 몸에 유혹과 시련을 더하여 원죄 없으신 성모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꼭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성모님 없이 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게 될때까지
 성모님을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어머니,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차례입니다."

-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 -



USA

남 미카엘라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KOREA

허인젤라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31-29 한양빌딩 B 1
Tel. 017-785-3535 / Fax. 02-2281-3246
E-mail : soulbassmaster@hotmail.com

CANADA

이준영 클레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eeacan@hot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온 세상에
전해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가 마음으로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www.qpmm.org

